

2022년 봄호 vol.166

2022년도 정기 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모교사용설명서/이화의료원의 이화 동창 혜택 알아보기  
이화의 기도처 순례/이화역사관 기도실

# 이화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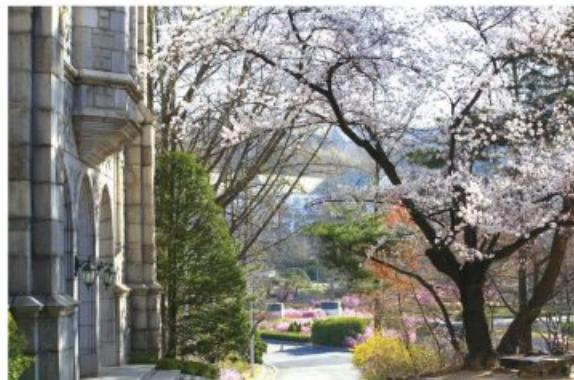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4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돋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총동창회 사업에 큰 힘이 되며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버팀목이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4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해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2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4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2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5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 원–1년에 한 번 납부

## ■ 납부 방법

지로 입금–《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남상택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이화영문80)

## ■ 문의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 이화 동창



## 표지사진

황규호(보고 교육학과 교수)  
이화 진달래 동산에서 바라본  
이화 캠퍼스(2021)

## 편집위원

남상택(달리 74, 총동창회장)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  
조미숙(식영 83, 총동창회 부회장)  
한미경(달리 88, 총동창회 총무)  
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편집위원)  
이영희(사학 88,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편집위원)  
허윤선(정의 89, 편집위원)

발행 2022년 4월 10일 발행

발행인 남상택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2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03 2022년도 정기총회

국내외 각지에서 화상으로 참석, 총동창회 각종  
현안 및 사업계획 보고

## 06 2022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

신입 동창 입회 환영하고 격려하는 자리  
50명에게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도

## 08 총동창회장 인사말

일상의 행복 속에서 베풂과 섬김의 이화 정신을  
실천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 10 2022년도 신입 동창 환영사

이혜경 사회과학대학 동창회장

## 10 2022년도 신입 동창 답사 김은규 신입 동창

## 12 이화인 모임 탐방 '이화퀼트' 모임

## 17 2022년도 사업계획안

18 이화의 기도처 순례 / 이화역사관 기도실  
사랑함으로써 서로의 종이 되라

## 20 축하합니다 장 상 동창 외

## 22 만나고 싶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이수연 동창

## 26 모교사용설명서

이화의료원의 이화 동창 혜택 알아보기

## 30 이화비즈 BT&amp;L그룹 대표 송주온 동창

## 34 선교지에서 온 편지 "나와 내 집은 이화를 섬기겠노라"

## 36 총동창회 소식

부장회의에서 2022년도 각 부 진행 사업계획안 논의 외

## 38 선교부 소식

"눈물로 기도하라", 2022년 각 대학 및 선교부장 모임 외

## 43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구글 UX 수석 디자이너 김은주 동창

## 48 모교 소식

의과대학 연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동창·교원·기업 후원 잇따라 외

## 53 대학(원) 소식 인문과학대학 외

## 56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외

## 59 지회 소식 뉴욕 지회 외

## 63 동창 근황 홍경자 동창 외

## 71 동창이 퍼낸 새 책『아름다운 늦바람』 외



03

##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제 | 2022년 3월 12일(토) 오전 11시 | 장 | 2022년 회의실 A



06



12



18



22



30



43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6)



생명을 빚으시는 창조의 하나님,  
마치 때를 멈춘 듯 얼어붙어 창백한 지난해의 끝자락을 단단히 여미며  
새 한해의 첫 자락을 조심스레 밟아 걸음한 때가 수일 전 같은데  
어느새 들숨과 날숨의 신비를 틔우는 따듯한 기운으로 인해 우리는….  
깊디깊은 한숨 너머 가늠할 수 없는 만 가지 아름다움을 그리며 담아 부르면서  
다시금 당신의 자취를 좇아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서 잠잠히 그 궁홀로 감싸심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잇대어 풍성케 하시는 당신의 충만을 보게 해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들로서 희락을 떠고 감사로 당신의 기이함을 선포하며  
그 의로우신 사랑을 우리 삶의 측량줄과 저울추로 삼아야 마땅한데  
편향되고 편취하는 왜곡된 성품과 강포한 성정으로 인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목청 높여 훠방하고 내 뜻만을 구하면서  
다시금 당신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당신의 몸에 채찍질하는 참담한 현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서 묵묵히 그 자비로 싸매심으로  
화해하고 화목하라고 탄식하며 강정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들게 해 주십시오.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역사의 하나님,  
이 땅과 온 땅을 품으신 당신의 언약을 헤아리며  
당신께서 청하신 식탁에서 너나없이 두루 나누며 하늘찬치 베풀어야 하는데  
편애하고 편식하는 허무한 욕망과 허랑한 욕심으로 인해 우리는….  
찢기신 당신의 살 먹이우시고 쓴으신 당신의 피 마시우게 하신 살림의 길을 외면하면서  
다시금 어제와 내일이 마구 뒤섞여 형틀어지고 파헤쳐져 흩어 무너뜨리는 오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서 고요히 그 안애로 동이심으로  
평화하고 평안하라고 다독이며 이끄시는 당신의 얼굴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뜻 오롯이 펼쳐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국내외 각지에서 화상으로 참석, 총동창회 각종 현안 및 사업계획 보고



총동창회는 3월 12일(토) 오전 11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이경숙(영문 70)·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 고문,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 이명경(무용 77)·조미숙(식영 83) 총동창회 부회장 및 임원, 김은미(사회 81) 모교 총장과 이해선(생미 92) 대외협력처처장 등 모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240여 명의 이화 동창이 줌(Zoom) 화상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한미경(물리 88)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남상택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과 개회사, 전회의록 낭독, 2021회계연도 감사·사업 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

인, 모교 소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영원한 이화인' 추대식 등 새로운 사업 설명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된 팬데믹으로 인해, 올해도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게 되어 송구하다”면서 “총동창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국내외 리더들이 세계 곳곳에서 줌 화상회의로 참석했다”고 알리며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올해 ‘동창의 날’ 기념식에 새롭게 진행되는 졸업 50주년 동창의 ‘영원한 이화인’ 추대식과, ‘올해의 이화인(이올) 연합회’의 출범 및 ‘각 과 동창회 선교부장 모임’ 등 동창회가 새로 시작하는 중요 사업을 소개하며 “동창들이 모교에 큰 역할을 감당



남상택 총동창회장



김은미 모교 총장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교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베풂과 섬김의 이화 정신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팬데믹의 삶 속에도 희망은 곧 찾아오리라 믿는다”면서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동창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소망하였다.

2021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은 김인정(컴공 87) 서기가 낭독한 후 성시열(의학 81) 의대 동창회장의 동의와 최은희(중음 81) 음대 동창회장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하고 가결되었다. 이어진 2021회계연도 감사 보고에서 임진(작곡 72) 감사는 “총동창회 회칙 제9조 3항에 의거, 2021년 3월 2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의 제 중빙서류를 감사한 결과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어 한미경 총무가 2021회계연도 사업 보고를

하였으며, 임선희(경영 88) 회계가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였다. 현장 참석자들은 유인물로, 줌 화상회의 참석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화면을 통해 보고서를 확인하며 경청하였다. 임선희 회계는 수입이 증가한 데 대해 “《이화동창》회보의 발행 부수 증가를 통한 평생회비 및 연회비 지로 용지 납부 증가, 오프라인 행사 감소, ‘올해의 이화인 연합회’ 회비 증가” 등을 이유로 덧붙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임원들의 홍보와 국내외 동창들의 적극적인 후원 덕분에 운영을 잘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명선(생명 77) 자연대 회장의 동의와 김곡미(생미 87) 총동창회 사업부장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반기로 하고 가결되었다.

한미경 총무는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2021년도에는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와 총동창회 후원이사 초청 오찬회가 코로나 19로 열리지 못했다”고 보고한 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된 행사로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 동창의 날’에 졸업 50주년 동창을 대상으로 한 ‘영원한 이화인’ 추대식이 처음 시작될 것이라고 알렸고, ‘올해의 이화인(이올) 연합회’가 정식 행사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임선희 회계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하

김은미 총장의 친린티엔 상 수상을 축하하며 꽃다발을 건넸다



신은경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모습



며 적극적인 행사 유치와 활성화를 목표로 행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이승희(피아노 87) 총동창회 음악부장의 동의와 박병희(약학 84) 약대 동창회장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하고 가결되었다.

다음으로 남상택 회장이 신은경(무용 78) 이화여대 명예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다. 지난 2월 28일(월)자로 정년퇴임한 신은경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으로 총동창회의 선교 사업에 동역해 왔다. 섬김과 나눔의 이화 정신을 실천해 온 신 교수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증정하자, 참석자들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박수로 경의를 표했다.

#### 지속가능한 모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 및 성과 보고해

이어 김은미 총장이 모교 소식을 전하려 단상에 오르자, 남상택 총동창회장이 꽃다발을 전달하고, 한미경 총무가 김 총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아시아재단에서 수여하는 ‘2021 창린티엔 리더십상’을 수상하였다는 소식을 동창들에게 알리며 축하하였다. 아시아재단은 1954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개발기구로서 아시아 전역의 삶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탁월한 업적과 훌륭한 리더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해 온 글로벌 리더에게 매년 창린티엔 리더십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2018년에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 총장은 “뜻밖



임진김사

김인정 서기

임선희 회계

의 축하를 받아서 영광스럽다. 이화를 대표해서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은미 총장은 먼저 “2월 말에 하나님 품으로 가신 이어령 명예석좌 교수님, 서광선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추모한다”며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희의 배움이 한층 높아졌던 것을 추억하고 마지막까지도 이화를 향한 사랑과 끊임없이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1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총장은 “지난해 창립 기념일에 <Ewha Vision 2030+>를 발표하고 ‘지속 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혁신 플랫폼’을 새 비전으로 삼아서 5개의 중요한 목표와 100대 사업을 준비했다”면서 “작년에 70여 개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벌써 90여 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소

온·오프라인으로 침식한 이화 동창



식을 전하며 다섯 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성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총장은 “모교가 2021년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두 계단 상승한 6위를 기록했으며, 약학대학이 120명 정원의 큰 규모로 6년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렸다. 또한 작년 11월 말부터 씨젠의료재단과 협약하여 교내 학생문화관 뒤편에 ESS(Ewha Self Station)를 설립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 관계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이대서울병원이 2019년 개원 이후 매년 20% 이상 성장을 하며 재정 안정화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김은미 총장은 “학교 본부는 총동창회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그 시작으로 지난 2월 총동창회와 대외협력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해서 그동안 법적으로 어려웠던 데이터 베이스 공유가 가

능하도록 했다”고 말하며 동창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정보통신법 관련해서 우려되었던 부분을 하나씩 맞춰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필요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교와 총동창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시공간을 넘어서 세계 각지에서 동창은 물론 재학생까지 줌 화상회의에 들어와서 참석해 주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며, 교가 제창을 끝으로 폐회를 선언하였다.

식순을 마친 후 김은미 총장은 전날 손수 구워 예쁘게 포장해 온 쿠키를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전해주며 정다운 인사를 나누었다. 이날 대외협력처에서는 떡 선물 세트를, 총동창회에서는 기념품과 선교수첩을 선물로 준비했으며, 동창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정기총회를 마무리하며 2022년도 총동창회 행사가 잘 치러지길 기원했다.

#### 2022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

## 신입 동창 입회 환영하고 격려하는 자리 50명에게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도

3월 12일(토) 오전 11시, 정기총회에 앞서, 2022년도 졸업생 3,680명이 총동창회에 신입 동창으로 입회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신입 동창 환영회가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열렸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현장에서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줌(Zoom) 화상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혜경 사회과학대 회장(왼쪽)의 환영사와 김은규 신입 동창의 답사



신입 동창 대표 김은규 동창과 장학생 대표 최하예린 동창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장학금을 수여했다

실내악 축하 연주

주종미(체육 92) 회우부장의 사회로 열린 환영회는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와 함께 시작했다. 기도를 맡은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내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린 후 “작은 바이러스 앞에 인간의 무능과 무지를 고백하오니,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돌아오게 해 달라”고 청했다. 또한 “이화의 선배들이 드린 기도들이 응답 되어 귀한 리더십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했다.

이어 이해경(정외 88) 사회과학대학 동창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화 교육에는 성숙한 인격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평등의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해 나가는 힘이 있다”고 말한 뒤, 신입 동창에게 “이화라는 디딤돌 위에 이화 동창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음을 잊지 말고 한 발짝 한 발짝 힘차게 내딛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김은규(간호 22) 신입 동창은 답사를 통해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부담이 너무 무거워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화에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하며 “선배님께서 빛내어 놓으신 이화를 저희 또한 빛낼 수 있도록 온 힘

을 다 해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신입 동창들에게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기념품과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였고, 참석자들은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하였다.

다음은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총동창회는 대학원 음악학부에 진학하는 최하예린(피아노 22) 동창 등 50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총동창회는 매년 대학원에 진학하는 25명의 신입 동창과 재학생 25명에게 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마지막 순서로 이어진 축하 연주에서는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실내악으로 들려주었다. 바이올린 송옥주(관현 07)·비올라 최지은(관현 07)·첼로 구자은(관현 07) 동창이 이상미(피아노 10) 동창의 피아노 반주와 함께 선사하는 실내악 연주 속에서, 교정을 떠나 사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신입 동창을 격려하고 축하하며 환영식을 마무리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일상의 행복 속에서 베뚫과 섬김의 이화 정신을 실천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남상택(물리 74,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이화 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봄기운이 가득한 3월이 오면 총동창회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 동창의 입학식과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반가운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인해, 올해도 비대면 화상회의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아쉽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 대학 및 과 동창회 대표와 국내 지회장, 북미주지회연합회를 비롯하여 아시아와 유럽 지회의 지회장, 그리고 총동창회 임원과 후원이사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를 위해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리더들이 국내외 곳곳에서 줌(Zoom) 화상회의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모교를 졸업하고 총동창회에 입회한 신입 동창과 총동창회 장학금을 받는 재학생들도 화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어 더욱 뜻깊고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사에 직접 참석해 주신 모교 김은미 총장님과 이해선 대외협력처장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랫동안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을 통해 총동창회 선교 사업에 동역해 주신 무용과 신은경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사랑과 격려로 총동창회를 이끌어 주시는 이경숙 고문님과 김영주 고문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총동창회는 ‘동창의 날’ 기념식을 비롯한 많은 행사와 사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총동창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영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의 이화인(이올) 연합회’를 만들어 총동창회 산하 단체로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30여 년에 걸쳐 추대된 올해의 이화인이 1,300여 명에 이릅니다. 총동창회는 이 분들이 이화인으로서 뜻깊은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직접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응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화 동창 선교 활동에 더욱 큰 소명감을 가지고 각 과 동창회의 선교부장 모임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봉사하는 임원진과 선교부장들을 위해 동창 여러분

분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총동창회는 많은 연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5월 '동창의 날'에 새롭게 진행할 '영원한 이화인' 추대식입니다. 졸업 50주년을 맞은 동창을 총동창회에서 초대하여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은 동창들이 해주셨습니다. 이에 총동창회에서는 졸업 50주년을 맞은 동창 가운데 추천을 받은 분들을 '영원한 이화인'으로 추대하고 기념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행사를 시작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50주년 이상이 되는 동창도 예외 사항을 두고 추천을 받아 추대하게 되며, 임원단에서는 각별히 예우를 갖추기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게 되면 추억이 쌓인 교정에서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동창들이 모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화 동창 여러분,

총동창회의 114년의 역사 속에서 이화가 키워낸 24만 이화 동창은 지금 국내외를 망라하고 훌륭한 인재로 자리매김하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굳건한 동창회의 터전을 이루어낸 전임 회장단을 비롯한 선배님들의 뜻을 깊이 새기면서 저와 총동창회 임원들은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동창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과 열린 자세를 갖고,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소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동창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감사한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또한 동창들이 모교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교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배풀과 섬김의 이화 정신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모든 것이 움트는 봄에 생명을 생각해 봅니다. 생명이 있는 한, 이 팬데믹의 삶 속에도 희망은 곧 찾아올 것입니다. 행복은 거대한 가치나 위대한 성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일상 가운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리 곁에 다시 곧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평화로운 봄을 노래한 시 일부분을 인용하며 인사 글을 마치겠습니다.

계절은 봄이고 /하루 중 아침 /아침 일곱 시/ 언덕에는 진주이슬 맷하고 /종달새는 창공을 날고/ 달팽이는 가시나무 위에 / 하나님은 하늘에 / 이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롭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다시 찾아와 동창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이화 가족과 가정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이자 리더로서 이화인의 이름을 빛내 주길

이혜경(정외 88, 사회과학대학 동창회장)



존경하는 김은미 총장님과 남상택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하여 선·후배 동창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신입 동창 여러분의 입회를 축하하는 환영사를 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입 동창 여러분, 이화 136년의 역사 속에서 24만 명의 이화 동창의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화 교육에는 성숙한 인격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평등의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해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는 이화에서 배우고 익힌 진선미의 덕을 실천하며 리더로 활동하는 많은 선배 동창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성이자 리더이자 이화인으로서 이름을 빛내리라 믿습니다. 이화라는 디딤돌 위에 이화 동창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한 발짝 한 발짝 힘차게 내딛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으로의 축하와 환영사는 올해가 마지막이길 바라며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직접 만나길 소망합니다. 2022년 이화 동창으로 한 가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배울 수 있었던 학창 시절

김은규(간호 22)



저는 이번 2022년 2월에 졸업한 간호대학 졸업생 김은규입니다. 먼저 제가 많은 신입 동창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 선후배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신 모든 이화의 동창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임에도 더 이상 강의계획안을 찾아보지 않고, 과제와 시험 일정을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졸업했다는 사실을 실감 나게 합니다. 최근에 학교를 몇 번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이화그린의 과잠(과 점퍼)을 입은 이화인들을 보며 지난 저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화여대는 저에게 수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신입생 때부터 학과 학생 회를 하며 여러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고, 4학년 때는 공동대표로서 간호대의 발전과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동기들과 중앙도서관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학과 동아리와 연합 동아리 활동도 하며 지난 4년을 쉼 없이 달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부담이 너무 무거워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화에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저는 동창들의 큰 사랑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더욱 안전하고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선배님들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보면서, 또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여러 장학금 제도를 보며, 이화의 교정이 더욱 빛나는 것은 이화 동창 선배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이화 안에서 많은 애정과 사랑을 느끼며, 지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선배님들의 지원과 사랑을 저의 후배들이 느낄 수 있도록, 또 제가 그랬던 것처럼 후배들도 이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화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께서 빛낸 이화를 저희 또한 빛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로의 첫발을뗀 졸업생들의 졸업을 축하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2022년 한 해, 모든 이화인의 건강과 평화를 기도하며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동창》을 받으시는 동창 여러분 중 주소가 변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277-3386~7 / E-mail : [ewhaalum@ewha.ac.kr](mailto:ewhaalum@ewha.ac.kr)

## 다양한 개성을 '이화'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엮어

### I. ME. MYSELF



'이화퀼트' 제4회 공동작 '자화상'

취미로 시작한 일이 작품 전시회로까지 발전하였다. '이화퀼트'는 퀼트를 하는 이화인들의 모임으로, 현재 5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2017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화 교정에서 4회째 전시회를 열고 있다. 공동 작업으로 모교 캠퍼스 지도를 퀼트로 만든 '이화아트맵(Ewha Art Map)' 작품은 모교 신축 기숙사 로비에 설치되기까지 했다. 퀼트는 걸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넣고 바느질하여 누빈 천을 이어 붙여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자투리 천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생활 소품을 만드는 점에서 우리의 조각보와 많이 닮았다.

이화퀼트의 2기 운영위원 고은경(물리 86)·서희성(식영 91)·최윤정(유교 92)·신현정(커미부

97) 동창을 만나 그 활동 내용을 들어보았다.

#### '이화퀼트' 모임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요.

고은경-각자 속한 퀼트 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니 동창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2016년 말쯤 '퀼트 하는 이화인들끼리 모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모임을 시작했어요. 몇 명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34명의 이화 퀼터들을 모아서 교정에서 2017년 첫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58학번부터 04학번까지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던 이화인들이 퀼트라는 공통점 하나로 만나서 선후배가 조화를 이루며 서로 격려하며 전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섬유예술 전공자도 있지만, 취미로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공과 학번의 폭이 넓고 수준과 경력차도 다양해서 개성이 넘치는 점이 '이화퀼트'의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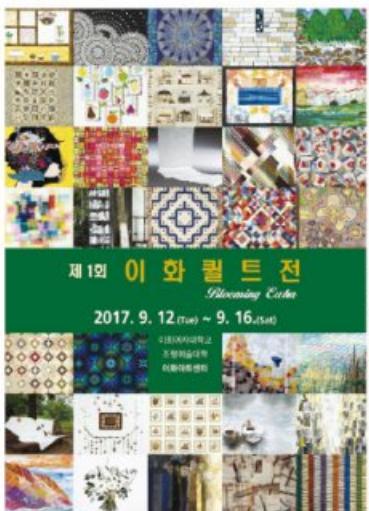
**최윤정** – '이화퀼트'의 최고령 선배인 김만애(의학 66) 동창은 매번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는데, 이번에는 작품만 보내셨어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고 있어 참석이 어려우셨죠. 늘 격려와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 든든한 선배님입니다. 64학번 동기 회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점도 특별합니다. 박영애(교육 68) 선배님은 동기들을 불러 모아, 64학번이 다섯 분, 65학번 한 분이 참여하고 있어요. 미국에 거주하는 회원도 세 명이 있습니다. 김소연(융합보건 91) 동창은 전시회 일정에 맞춰 직접 작품을 들고 와서 설치까지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회원이 모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 '이화퀼트' 모임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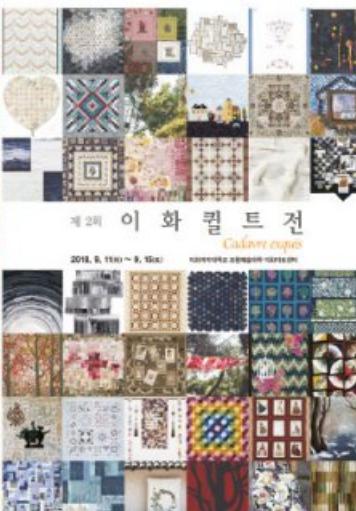
**서희성** – '이화퀼트'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일년에 한 번 하는 '이화퀼트' 전시회입니다. 네 명의

운영위원이 3년 임기로 전시회를 주관하며 회를 꾸려가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창립 멤버로서 1기 운영위원을 맡은 최은령(영문 85)·김경주(화학 86)·홍동희(생미 89)·김현아(생미 90) 동창을 주축으로 시작했어요. 연 1회 정기 전시를 열 수 있도록 체계를 잘 잡아놓았습니다. 전시회를 위한 준비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운영진 회의를 통해 그 해의 공동작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지요. 이후에 정기 모임에서 공동작의 제작 방법과 전시 일정을 알리고 전체 회원들이 만나 서로 인사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모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2019년 제3회까지는 매년 전시회를 열면서 모임이 막 활성화되던 시점이었는데 2020년 전시는 코로나19로 취소되어 너무 안타까웠어요. 작년 제4회 전시는 단톡방에서 공지를 올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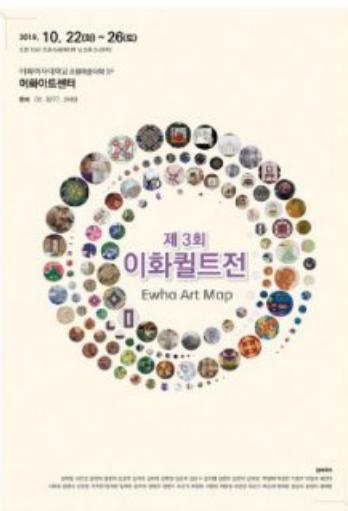
'이화퀼트 전'에서는 매 전시마다 주제가 있는 '공동작'을 선보이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2017년 제1회 이화퀼트전 포스터



2018년 제2회 이화퀼트전 포스터



2019년 제3회 이화퀼트전 포스터

**최윤정** – 회원들은 전시회에서 ‘공동작’의 주제로 만든 작품과 ‘개인 작품’, 이렇게 두 점을 냅니다. ‘공동작’은 ‘이화퀼트전’에서 무척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작업이지요. 회원들은 각자의 부분을 맡아 제작하고, 모자이크식으로 합쳐서 하나의 큰 작품을 완성합니다. 소재와 방법 및 크기는 자유롭습니다.

2017년 열린 첫 전시회의 주제는 ‘블루밍 이화(Blooming Ewha)’였어요. 34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이화의 이미지를 다채롭게 표현했습니다. 2018년 열린 제2회의 주제는 다소 생소한 ‘카다브르 엑스키(Cadavre Exquis)’라는 개념을 실험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앞 사람이 그린 그림의 마지막 선을 연결해서 그리는 방식으로 제작한 다음, 각자 해온 작품을 연결하여 설치하면 비로소 전체 모습이 완성되는 방식이었어요. 42명의 회원이 참여했는데 어떤 형태의 작품이 나올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죠. 완성됐을 때 모두 놀라워했고 어려운 주제였던 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서희성** – ‘퀼트비(Quiltbee)’라는 표현이 있어요. 퀼트의 탑 부분을 모양 짜서 여럿이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교류하

고 연대하게 되지요. ‘이화퀼트’의 ‘공동작’은 그런 의미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각자 다른 공간에서 작업은 하지만 공동작을 주제로 작업하는 과정이 구심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3회 ‘이화퀼트전’에서 회원들이 ‘공동작’으로 모교 캠퍼스 지도를 퀼트로 만든 ‘이화아트맵(Ewha Art Map)’ 작품이 화제가 되었죠. 모교에 기증하여 신축 기숙사 로비에 설치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최윤정** – 2019년 제3회 전시회의 ‘공동작’ 주제는 ‘이화아트맵’이었어요. 이화 캠퍼스 지도의 이미지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한 일인데, 지금껏 해왔던 공동작 중에서 가장 보람되고 반향도 컸습니다. 참여한 40명의 회원들이 학교 건물 하나하나와 나무와 배경을 나누어 맡아, 한땀한땀 바느질로 교정을 채웠습니다. 사이즈가 약 220cm×220cm 되는 대형 퀼트 작품이 완성되었지요. 전시장에 당시 김혜숙 전 모교 총장님의 와서 보시고 많이 반가워하셨어요. 학교에 영구 전시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이 늦춰졌죠. 2021년 제4회 전시회 때 다시 논의가 되어, 신축 기숙사 E-House 로비 벽



제1회 공동작 ‘블루밍 이화(Blooming Ewha)’



제1회 공동작 ‘블루밍 이화’ 작품 앞에서 회원들이 찍은 사진



제3회 공동작 '이화아트맵'은 모교 신축 기숙사 로비에 설치되었다

면에 설치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남겼으면 하는 것이 회원 모두의 바람이었어요. 본인이 제작한 건물 하나씩을 갖고 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니까요.

**신현정** – 저희가 지도를 제작할 당시에 모교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신축 기숙사와 산학협력관이 새로이 들어섰어요. 고은경 동창이 다급히 두 건물을 추가로 제작하였고, 작년 겨울에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작품 보호를 위해 액자를 만들어 설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이화아트맵'에 대해 가진 애정은 남다릅니다. 기념품으로 남겨서 동창들에게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화아트맵' 작품을 전사(轉寫)해서 에코백 샘플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보람되고 자긍심을 느낍니다.

줄곧 모교의 조형예술대학 2층 '이화아트센터'에서 전시를 열고 있는데, 전시장으로 모교를 고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희성** – 모교 내의 전시 공간에서 한다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 일년에 한 번 모교를 방문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회원들에게 뜻깊습니다. 2020년에 '이화아트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해 휴관하자, 외부 전시장이나 온라인 전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 해를 걸러 기다렸다가 모교에서 열게 되었죠.

**최윤정** – 전시회를 계기로 오랜 동창을 모교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좋아요. 친구들을 초청하여 오랜만에 동창들과 만나서 교정을 둘러보며 옛날 공부했던 건물도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화 캔트전'은 늘 가을에 여는데 그때가 교정이 참 예쁠 때거든요.

코로나19가 지속되던 지난해 가을, '자화상'을 주제로 4회 전시회를 열어 존재감을 드러냈지요.

**고은경** –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다소 침체되어 있는 시기를 지내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자화상(I, ME, MYSELF)'을 '공동작' 주제로 정했습니다. '원형'이라는 규격만 정하고, 각자 완전히 창의적으로 맡겼습니다. 다양한 소재와 기법으로 매우 재미있고 개성이 넘치는 작품이 나왔어요. 코로나19 때문에 26명의 회원만이 참석했습니다.

전시를 위해 작품을 설치하는 날, 회원들은 각자 제작한 작품을 들고 와서 디스플레이 한 다음, 본인의 작품에 대해 한 명씩 돌아가며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설치 작업을 마치고는 다 같이 식사하는 화목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

문에 그런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작년에는 전시 직전까지도 아슬아슬했어요. 전시 개막 1주일 전에 조형대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전시장이 폐쇄될까 봐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까지 갔었지요. 마스크 쓴 채 단체 사진만 찍고 해산했습니다.

###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웰트를 하면서 얻는 보람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고은경– 전시 작품을 준비하는 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취미 생활을 넘어 전시를 하게 되면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창의적인 것을 고안하게 됩니다. 웰트는 숙련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동안 좋아하는 스타일이 뚜렷해지고, 자기의 세계가 완성되어 갑니다. 작품을 만들고 나면 해냈다는 성취감이 들어요.

신현정– 저는 '이화웰트'의 막내로 제일 늦게 합류했고 경력도 짧아요. 전시를 꾸준히 하며 작품을 내다 보니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응원해 주니 자존감도 많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이화웰트전'에서 '개인 작품' 한 점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작품을 제출하면 되지만, '공동작'은 선정된 주제에 따라서 꼭 그 해에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새 작품을 만들 동기 부여와 기회가 됩니다.

### '이화웰트'에서 앞으로의 계획과 동창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서희성– '이화웰트'는 개성이 다양하면서도 또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다른 단체의 경우 전시장에서 잘 보이는 자리를 선점하려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런데 '이화웰트'는 선후배가 서로 좋은 곳을 양보하는 훈

훈한 모임이에요.

신현정– '이화웰트'에는 전통 웰트, 아트 웰트, 패브릭 아트, 염색, 자수, 규방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섬유, 실로 만든 모든 형태에 열려 있으니 많이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지도자, 강사급의 경력을 가진 회원이 수두룩하지만 저처럼 초보도 있답니다. 93학번인 제가 막내 라인인데 못도 박고 일할 짧은 회원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웃음).

'이화웰트' 회원들은 웰트의 가장 큰 매력으로, 결과로 나오는 작품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만드는 '웰트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5년여의 짧은 시간 동안 연이은 전시회와 '이화아트맵' 탄생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웰트비들의 동지애와 이화인 선후배의 연대감이 한몫을 했으리라. 웰트에 관심이 있는 이화인들이 모여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작품을 서로 자랑하고 즐길 수 있는 모임의 장 '이화웰트'에 동창들의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올가을 열릴 제5회 '이화웰트전'에서는 또 어떤 개성과 열정이 표현될지 기대를 갖고 '이화웰트' 활동을 응원한다.

글·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제2회 공동작 '카다브르 엑스키' 앞에서

# 2022년도 사업계획안

2022. 3. 1 ~ 2023. 2. 28



1.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3월 12일)
2.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외 지회장 초청 간담회(4월 28일)
3. 제9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예정)
4.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5월 10일)
5.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5월 31일)
  - 총장 초청 오찬
  - 기념식-제7회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
    - 졸업 50주년(1972년 졸업)·30주년(1992년 졸업) 동창 재상봉 행사
    - '올해의 이화인' 추대
    - '영원한 이화인' 추대
    - 합창제
      - '올해의 이화인', '영원한 이화인'을 위한 다과회
6. 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대バ자(9월 예정)
7. 총동창회 후원이사 초청 오찬회(예정)
8. 제21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10월 예정, 미국 남가주 지회 주최)
9. 2022년 이화인의 밤(11월 28일)
10. 제15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11월 28일)
11. 이화가족 성탄예배(12월 1일)
12.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예정)
13. 정기임원회(매달 둘째 주 목요일)
14. 동창회보 166호~169호 발간(3, 6, 9, 12월)
15. 국내 지회 활성화를 위한 지회 순방
16. 연회비 및 평생회비 납부 회원 배가 운동(연중)
17. 후원이사 증원(연중)
18. 모교발전기금 모금(연중)
19. 지원 사업(연중)
  - 1)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행사 찬조
  - 2) 학생군사교육단 입단식 후원
20. 기념품 제작 및 판매(연중)
21. 황화방 리모델링 후 운영(연중)
22. 기타

## 사랑함으로써 서로의 종이 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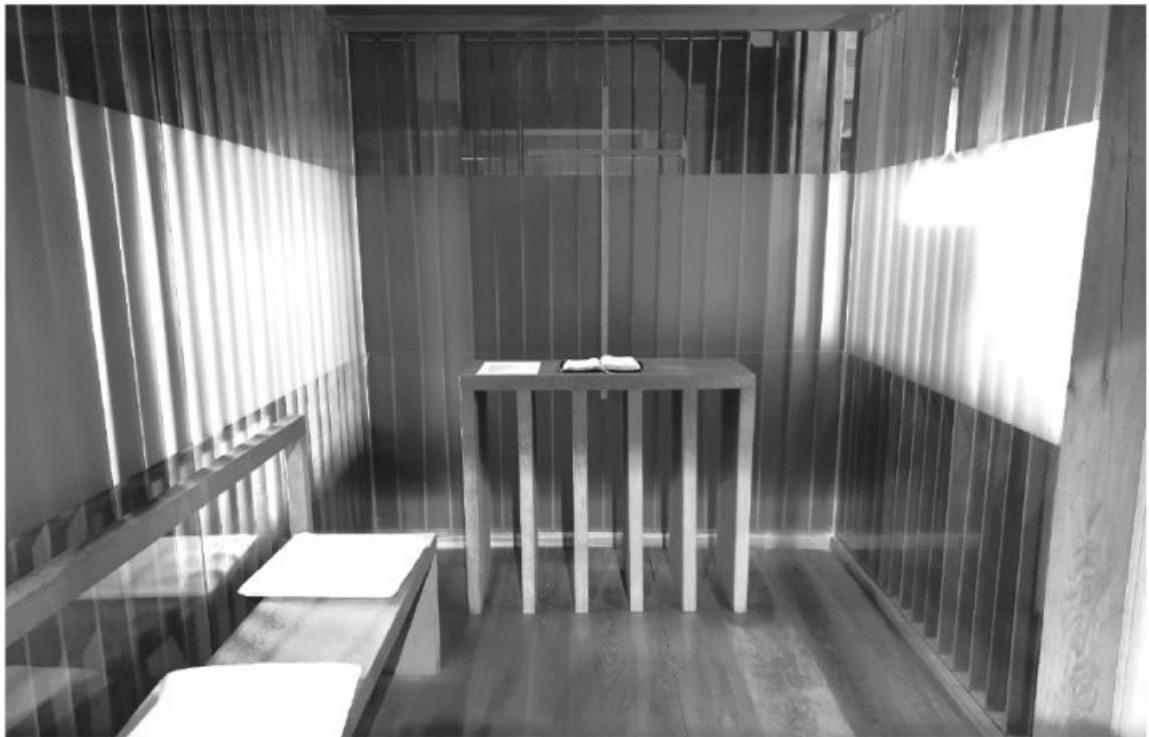
©이화역사관 제공

헬렌관 옆 오르막길을 올라 잠시 숨을 고르고 법학관 앞길을 걷다 보면 고즈넉하게 서 있는 한옥 한 채를 만날 수 있다. 아득한 역사 속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이화역사관이다. 모교의 역사를 연구하고 학교사 자료를 정리·보존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곳은 아령당과 더불어 교정 안에서 만날 수 있는 한옥 건물이다. 정동 황화방에 있던 이화 한옥 교사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 이화역사관은 이화 창립 120주년인 2006년에 이곳에 둉지를 틀었다. 1886년 11월 스크랜튼 선생이 지은 이화학당은 교실과 기숙사 등 7개의 방을 갖춘 한옥 교사로 마당이 있는 모자의 큰 기와집이었던 데 비해 지금 역사관은 규모는 작지만 이화 교정을 품에 안고 있는 모양새에 푸근한 정취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1층 전시실에서 이화의 역사와 선배들의 자취를 둘러보며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다 보면 끝자락에 자리잡은 기도실에 닿게 된다. 한옥의 단아한 처마 밑으로 정갈한 마당이 보이고, 창살에 비껴든 햇빛이 사뿐히 내려앉은 공간이다.

기도실은 이화 120년 믿음의 역사를 감사하며 오늘의 ‘이화’가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계 곳곳에 그 열매를 나누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곳으로 마련되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기도실 안에 놓인 작은 '종'의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 이화역 사관의 기록 일부를 인용한다.

이화학당 시절, 기숙사 생활은 교육의 한 부분이었다. 일정한 교육 기간 동안 학생을 부모로부터 위임받아 학문과 생활 교육을 통하여 완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이른바 전인 교육 과정의 일부였다. 따라서 기숙사 생활은 그대로 수업 시간의 연장이었다.

“나는 이화에서 공부할 때 5년 이상이나 그 종을 올렸었고 그 일로 받은 장학금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 김활란

기숙사의 아침을 열고 밤을 닫았던 종소리는 이화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였다. 1923년 가을, 김활란 전 총장이 미국에서 열린 세계여자해외선교단의 간부 회의에 참석했을 때 보스턴의 한 박물관에 증정했다고 알려진 그 종은 아쉽게도 그 이후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복원을 할 수 없었다. 지금 기도실에 있는 종은 그때의 종과는 관계가 없다.

나라의 일꾼으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봉사하고 사랑하며 서로의 종이 되라고 가르친 이화의 교육 이념이 그대로 담긴 공간, 이화역사관의 기도실이 소중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

글과 사진 · 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계재

## 장 상(수학 62) 동창

### 제4회 백범교육상 수상



전 모교 총장 장상 동창이 2021년 12월 21일(화) '백범교육상'을 수상하였다. '백범교육상'은 백범 김구 선생의 애국애족의 마음과 존중과 섬김의 통합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국민통합비전에서 2004년 제정한 상으로, 이번에 4회째를 맞았다. 장상 동창은 모교 제11대 총장(1996~2002)을 역임하며 모교가 세계적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장상 동창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현법재판소 자문위원, 민주당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 이배용(사학 69) 동창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 임명



전 모교 총장이자 영산대 석좌교수인 이배용 동창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에 임명됐다. 이배용 동창은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데 기여하여 한국 고유의 선비 정신을 세계에 알린 공으로 제3회 대한민국 선비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전통 한지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추진단장을 맡아 전통 한지의 진흥과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 남정호(무용 75) 동창

### 국립예술단체연합회 회장 선임



국립현대무용단 단장 겸 예술감독 남정호 동창이 사단법인 국립예술단체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2023년 1월 27일까지다. 남정호 동창은 부산 경성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로 재직하며 안무가 양성에 기여했으며, 2020년 2월 국립현대무용단의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취임해 한국 현대무용의 지속적 발전을 이끌고 있다.

## 조은희(영문 84) 동창

### 서초갑 국회의원 당선



전 서초구청장 조은희 동창이 2022년 3월 9일(수)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국민의힘)으로 당선되었다. 조은희 동창은 《영남일보》를 거쳐 《경향신문》에서 10년간 기자 생활을 했으며, 대통령 비서실 행사 기획비서관, 문화 관광 비서관, 양성평등본부 수석본부장 및 기획홍보위원장, 2008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에는 여성 최초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 류은주(약학 91) 동창



#### 삼양바이오파USA 대표 선임

류은주 동창이 2022년 2월 10일(목) 삼양홀딩스의 미국 자회사인 삼양바이오파USA의 대표로 선임되었다. 류은주 동창은 글로벌 제약 기업을 중심으로 의약품의 글로벌 임상 시험 관리 및 인허가, 비즈니스 개발, 글로벌 마케팅 분야에서 약 30년의 경력을 쌓은 의약품 신사업 개발 전략 수립 및 마케팅 전문가다. 한국화이자제약 및 미국 화이자 본사, 바이엘 코리아, 미국 의료기 기업 등에서 글로벌 임상 시험 및 신사업 개발을 이끈 바 있다.

### 김은혜(커미부 93) 동창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임명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은혜 동창이 3월 11일(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 김은혜 동창은 MBC에 기자로 입사하여 간판 앵커로 활동하였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대변인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총선 직전 국민통합연대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대변인을 맡기도 했으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도 대변인에 임명된 바 있다.

### 민수아(법학 94) 동창



####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선임

민수아 동창이 2022년 2월 28일(월) 열린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임시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민수아 동창은 2006년 삼성자산운용에 펀드 매니저로 입사해 2012년 회사 첫 여성 본부장으로 발탁되는 등 국내 1세대 펀드 매니저로 꼽히며 시장에서 독보적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민수아 동창은 국내 연기금 위탁 운용 펀드를 12년째 운용하며 장기간 우수한 성과를 시현하고 있다.

### 유은하(화학 94) 동창



#### 한국알테어 지사장 선임

유은하 동창이 2022년 1월 10일(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알테어' 한국 지사장에 임명되었다. 유은하 동창은 알테어 창사 이래 최초의 여성 지사장이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알테어는 25개국에 86개 지사를 둔 글로벌 IT기업이다. 유은하 동창은 1994년에 삼성SDS에 입사 이후 PTC코리아와 앤시스코리아, 다쏘시스템 코리아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한국알테어에는 2017년에 합류해 소프트웨어 사업 전반을 담당하며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인정받았다.

### 위은진(통계 95) 동창



#### 법무부 인권국장 임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위은진 동창이 2022년 1월 3일(월)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용되었다. 여성이 인권국장에 임명된 건 처음이며, 세 번째 비(非) 검사 출신 인권국장이다. 위은진 동창은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약 20년간 변호사로 일해 왔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이수연 동창

## 사랑으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홀트의 힘

아동복지회

HOLT 홀트아동복지회

HOLT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아동복지회

HOLT 홀트아동복지회

HOLT 홀트

홀트아동복지회

아동복지회

트아동복지회

HOLT 홀

아동복지회

회

HOLT

홀트

아동복지회

아동복지회

“입사 때만 해도 아동복지 하면 고아원이나 입양밖에 없었어요. 당시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가 했던 일은 그야말로 진취적이었죠. 아무 보조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부모 잃은 아이들을 거두고 새로운 가정을 찾아 주는 작업들은 굉장히 고귀한 경험이었어요. 사랑으로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깨달았지요. 홀트에 몸담았던 기간은 피가 섞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온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이었어요.”

### 37년간 복지 현장 최일선을 누비며

사회복지라는 단어조차 낯설던 시절 모교 사회계열에 입학한 이수연(사복 85) 동창은 배움이 깊어질수록 사회복지가 실천적 학문이라는 점에 마음이 끌렸다. 1985년 홀트에 입사한 이 동창은 수도권의 홀트 산하 미혼모자 양육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원장과 관장, 본부장 등을 거쳐 2021년 9월 21대 회장에 선임되기 전까지 37년여간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잔뼈가 굵었다.

“한때 기관에 대해 실망해 그만두고 싶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홀트를 더 나은 기관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안타까움과 오기 같은 것이 생겼어요. 그것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었던 같아요”라고 홀트에서 통렬한 이유를 밝힌다.

설립자 해리 홀트 씨가 1955년 8명의 전쟁고아를 입양하면서 시작된 홀트의 사업은 당시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던 장애인을 위해 특수학교와 보호작업장을 짓는 장애인 복지로 확대되었고 그런 홀트의 발자취는 복지의 불모지나 다름 없던 이 땅에 아동 및 장애인 복지의 기틀을 잡는 홀륭한 밑거름이 되었다. 나아가 미혼모자와 보호종료 청소

년에 이르기까지 복지 사각지대에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찾고 그들에게 경제적·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 왔다. 무엇보다 홀트의 실천에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랑이 있었다는 점에 이 동창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다.

남다른 사명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법하지만, 이 동창은 “사명감이라는 거창한 마음보다는 한 아이라도 품어주고 싶은 애끓는 마음, 어떻게든 아이들의 힘든 현실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런 연민과 동정심이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일과 잘 맞았던 덕분이라고 덧붙인다.

### 더 촘촘하고 더 민감하게

이 동창이 홀트에서 겪은 가장 가슴 아픈 경험이라면 2020년 10월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홀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났죠.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고, 후원자들도 많이 떠났어요. 저는 조직 내부자로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어떤 조짐이 있었다고 봐요. 그 조짐을 더 빨리, 더 민감하게 알아채지 못한 것이 아쉽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기관 스스로 더 촘촘하고 민감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비혼(독신) 입양 등 입양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입양 관련 사건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요즘, 입양 조건이나 사후 관리를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이 동창은 명확히 선을 긋는다. “입양 조건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질 필요는 없어요. 현재 충분히 까다롭거든요.



2019년 직고한 고 말리 홀트(해리 홀트의 셋째 딸) 전 이시장과 함께  
(2018)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정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바뀌면서 법원의 입양 허가를 기다리는 데 길게는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입양 후 문제를 일으킨 부모들을 보면 못 배워서, 또 직업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사후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가정방문 조사 횟수를 늘린다 해도 상담자의 인권의식이나 문제를 알아차리는 민감성이 부족하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선임 회장이 입양 실무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떠났다. 조직 개혁이 급선무라고 여긴 이 동창은 1995년 홀트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경영진을 향해 질타의 목소리도 서슴지 않던 경력을 살려 홀트 회장 공개채용에 도전했다. “어떤 때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 싶다가도 잘못된 것을 눈으로 보고는 못 참는 기질이라 가만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지난 9개월간 이 동창은 홀트를 제자리로 돌려놓느라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했고 지금도 현재진 행형이다. “어깨가 많이 무거워요. 홀트가 건강성을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해요. 내부 소통관계를 조정하고, 새로 기획한 사업도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기관 중심으로 생각하고 안팎으로 책임져야 하

는 회장이 되고 보니 어디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개혁의 길은 거친 산세와 바람을 이겨내는 등정과 같다고 했잖아요. 정상에 다다를수록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처음 회장을 맡았을 때 제 심정이 딱 그랬어요.”

### 셋째 기르며 입양의 기적 경험

이 동창은 2007년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7세까지 지낸 사내아이를 셋째로 맞아들여 딸 하나 아들들을 가진 엄마가 되었다. 시설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아이에게 가정이라는 올타리를 갖게 해주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이미 친자녀가 있는 상황이라 우려가 없진 않았다.

“아이들끼리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입양한 자녀도 내가 낳은 자녀도 이런 경험을 통해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밀고 나갔죠. 그래도 완전한 가족을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자녀들 누구도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동창은 셋째가 상처받지 않고 성장기를 보내도록 신경썼다. 부모들이 연장아를 입양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처음의 좋은 마음이 끝까지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보통 친자가 있는 사람이 연장아를 입양하면서 ‘사랑으로 기르면 되겠죠’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입양아가 질투하고 친자가 입양아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부모들이 입양을 더내지 못해요. 결국 파양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갈등은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지를 고민해야 해요.”

다행히도 이 동창의 자녀들은 그 과정을 무사히



해외 후원 사업장인 캄보디아 학교 방문(2019)

지나갔고 잘 자라줬다. 처음엔 무기력해 보이고 도전 정신도 부족하던 셋째는 10여 년이 지나면서 자기 몫을 잘 해내는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 대학생이 되었고 지금은 군 복무 중이다. “저나 남편에게서 나올 수 없는 기질의 아이를 기르는 재미가 있어요. 다르니까 신기하고 예쁘고 더 기쁨을 주죠. 그것이 입양이 갖는 기적이에요.”

### 보호종료 아동에서 미혼 한부모까지

만 18세가 된 보호종료 아동들이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돋는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이하 ‘파랑새’)’은 홀트가 선도적으로 시작한 사업 중 하나다. 2018년부터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업은 이후 많은 복지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세상 밖으로 나와 온전히 혼자 살아가야 하는 보호종료 아이들에게는 경제적 도움도 물론 필요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의지할 존재를 만들어주는 정서적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해요. 홀트는 적립금 지원 외에도 ‘파랑새’ 멘토링을 통해 아이들이 사회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돋고 있어요.”

이와 함께 그들이 경제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바리스타, 컴퓨터 기술 등의 교육비를 지원

하는 ‘런런챌린지’와 생활비가 없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힘들게 병행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드림플러스’, 예술과 운동의 꿈을 가진 아동보호시설 예체능 고교생에게 멘토링을 지원하는 ‘네 꿈을 응원해’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보호종료 청년이자 봅슬레이 국가대표로 활동 중인 강한 선수가 ‘파랑새’ 명예 멘토로 위촉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홀트는 국내 아동복지에서 그치지 않고 해외 빈곤 아동의 교육과 가정 자립도 지원한다. 현재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의 빈곤 지역에 홀트 드림센터가 세워져 있다.

홀트의 아동복지 사업은 미혼 한부모 지원 사업으로도 이어졌다. 현재 홀트 산하에는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힘들어 하는 미혼 한부모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7개의 그룹홈이 운영 중이다. 나아가 미혼 한부모가 그룹홈을 나간 후 개인의 적성과 재능을 살려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비를 주는 ‘똑똑한 엄마’ 프로그램과 배운 기술을 실습하고 상품으로 개발, 제작해 볼 수 있는 공유공방 ‘가치만들’도 마련돼 있다. 그들이 이곳에서 만든 수제청이며 가죽공예품 등 물품을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플리마켓도 열어 준다. 미혼

한부모들은 이렇게 함께 배우고, 서로 소통하며 살아갈 힘을 얻는다.

작년에는 수원 미혼모자 양육 시설에서 함께 지냈던 식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코로나 19 상황이라 사무실에 뜯자리를 깔고 아이들과 함께 악자지껄 놀았던 일은 내내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철없던 어린 엄마들이 그룹홈을 나와 혼자 애쓰며 아이들을 예닐곱 살까지 키워낸 것을 보니 대견했어요. 개중에는 미용 기술을 배워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마다 살길을 찾아 꾱하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동창을 움직하게 했던 것은 그들이 선물과 함께 건네 준 카드 한 장이었다. “‘원장님은 제2의 어머니예요. 저희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돌봐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 일을 한 것뿐인데 그렇게까지 과찬해 주니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죠.”

이 동창은 “홀트가 다른 후원기관처럼 홍보나 광고에 돈 쓰지 않고 후원에 진심인 곳이라고 평가해 주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이 홀트가 가진 저력”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홀트는 후원 취지에 맞게 가장 필요한 곳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맞춤형 지원 기관이 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나아가 전문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갖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

이 동창은 마지막으로 “비록 귀한 일을 꾸준히 해온 홀트의 면면이 이 자리에서 다 드러나진 않겠지만, 후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은 여전히 많다는 점을 꼭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재직시 직원들과 함께한 코로나 의료진  
응원 장면(2020)

글·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 종합건강검진비 감면 등 동창을 위한 혜택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치료와 교육의 시작점이었던 보구녀관의 정신을 이어받아 환자에게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함께하는 의료진이 있는 곳, 이대서울병원을 찾았다. 국내 대학병원 중에서 최근에 지은 병원에 들어서니, 큰 규모의 건축물에서 오는 중압감이나 어수선함이 아닌, 따뜻하고 차분한 편안함이 느껴졌다. 《이화동창》을 위해 이화의료원 사회공헌부장인 소화기내과 심기남 교수와 사회공헌운영팀이 바쁜 일정을 조개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이대서울병원은 앞서가는 생각과 철저한 준비로 최첨단의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어 문을 열고, '섬김과 나눔'의 의술을 펼치고 있다. 최고를 지향하는 자랑스러운 이야기와 이화의료원의 이화동창에 대한 서비스를 소개한다.



코로나19 전 수요음악회,  
민사고 오케스트라의  
연주 모습

여 시설과 시스템을 가장 최신의 것으로 업데이트하여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대서울병원은 최근 많은 사랑을 받은 의학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옛볼 수 있듯이 아름답다. 이대서울병원에 들어서면서 접하게 되는 아트리움은 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으로 포근한 인사를 한다.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를 분리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설계했고, 마감재를 달리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심 교수가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국내 최초로 기준병실 3인실, 중환자실 1인실이라는 새로운 병실 체계 구축에 대한 것이다. 입원 병실이 1인실, 2인실, 다인실로 구

### 환자 중심의 공간

1887년 보구녀관에서 시작한 이화의료원은 1930년 동대문병원을 거쳐 1993년 목동병원을 개원한 후 2019년 이대서울병원 시대를 열면서 기존 병원들의 장단점을 모두 참고하

성되어 있는데 다인실이 3인실이다. 다인실은 3개의 병상 간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현재는 커튼을 이용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벽을 설치하여 모두 1인실로 개조가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다. 또한 중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환자들 간의 감염 리스크가 높아 케어하는 데 많은 주의를 요하는데, 이대서울병원은 모든 중환자실이 1인실로 되어 있고 필요한 장비와 기구들을 활용하는 데 충분한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다.

입원 병실에는 모두 1,014병상이 있다. 개원 이후 단계적으로 병상을 열던 중, 700여 병상을 오픈한 상태에서 코로나19의 변종 오미크론 확진자가 수십만 명을 넘어서고 코로나19 환자들을 케어할 병상이 부족한 시점에, 169병상을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추가로 오픈했다. 이대서울병원이 2021년 12월에 대학병원 최초의 코로나19 전담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일반 병상 운영과 함께 올해 2월부터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A관, B관, C관으로 구분된 병동 및 3개 층씩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공조 시스템 덕분이다.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이 완전 분리되어 엘리베이터 사용부터 다르다 보니 일반 환자들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도 특수 환자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요한 기도 공간으로 3층의 방주교회를 이용할 수 있다.

이곳의 하부 구조물은 배의 아랫부분인 듯한 굴곡을 지닌 형상으로, 천장이 높은 로비와 함께 조형적인 아름다움까지 더한다.

### 최고의 시스템과 의료진

이대서울병원에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이 세팅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임상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환자의 심전도, 호흡, 맥박 등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앙 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콜을 받고 병동에 갔더니 임상통합상황실의 선생님도 와 있어서 심 교수도 놀란 일이 있다고 한다. 의료 장비도 가장 최신 버전으로 세팅되어 있어, 베스트 컨디션에서 수술할 수 있는 로봇 수술 시스템을 산부인과, 비뇨기과, 외과 등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산부인과의 경우 어려운 케이스의 산모들이 많이 와서 신생아 중환자실이 항상 풀가동 되고 있고 작년에는 1,000례 넘는 출산이 있었다. 아기 출산 또는 중환자실에서 케어를 받았던 분들의 가족들이 고마운 마음을 이대서



기준병상 3인실(위)  
중환자실 1인실(아래)

울병원에 기부로 이어 주고 있다며 사회공헌부장인 심 교수는 감사해한다.

병원이 개원을 하면 인턴이나 전공의를 수련할 수 있는 교육수련병원으로 지정받는 데에는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이대서울병원은 현재 응급실부터 중환자실까지 모든 진료를 교수들이 직접하고 있다. 교수들 수십 명이 오버나이트 당직을 하는 관계로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오면 최단 시간 내에 피검사, CT, MRI 촬영이 진행되고 필요한 진료과로 연락이 가서 응급수술의 경우는 응급실에서 수술 준비까지 해서 바로 수술실로 올라가 수술할 수 있는 놀라운 메디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골든타임을 넘기면 생사를 가르는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경우는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시스템이 100배의 속도로 진행된다. 이대서울병원에 가면 분명히 관련 스태프가 있고 환자가 빨리 케어될 수 있다는 것을 119에서도 경험으로 알고있는 상태로, 시간이 되고 올 수만 있다면 강북 끝에서도 마곡에 위치한 이대서울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마곡 지역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곳으로, 코로나19 이전에는 1년에 1만 명 이상의 외국 환자들이 와서 수술을 받거나 항암 치료를 받았다.



보구녀관

심 교수는 이화의료원의 최근 사업 하나를 더 소개한다. 목동병원에서 의대 학생들이 사용하던 의학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A관 비뇨기병원, B관 여성암병원 확장, C관 힐링과 이화 역사의 공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비뇨의학과 이동현 교수의 인공방광 수술은 소변 주머니를 차야만 하는 방광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소장으로 인공 방광을 만들어 요도에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소변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세계 최초의 시도이다 보니 외국 환자들도 몰려 올 해 2월에 대학병원 최초로 비뇨기병원을 오픈했다. 또한 산부인과, 갑상선, 유방암 등 여성 환자의 암을 전문으로 보는 여성암병원을 대학병원 최초로 운영하고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이대서울병원에서 예술 산책하며 이화 동창 서비스 혜택까지 누리기

4,200여 개의 루버로 둘러싸인 직선적인 외관의 이대서울병원의 내부는 부드러운 곡선, 따뜻한 색감, 은은한 조명으로 편안함을 준다. 이곳은 환자를 위한 공간이면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받는 곳,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곳, 때로는 음

악회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그룹전시 공간인 SPACE B-TWO, 조형예술 전시공간인 ART CUBE, 신예작가들의 전시 공간인 WELLNESS ART ZONE에서 연간 6~7회의 다양한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이대 조형예술대학 재학생과 동창들의 전시였던 2021 EUMC FAIR 이후 기증된 작품들, 이대 조형예술대학 ECA센터와 협업한 2019 소품전 이후 기증된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예술 작품은 야외 곳곳에도 설치되어 있어 이대서울병원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예술 산책 지도를 참고해서 3가지 코스별로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야외 코스로는 4층 힐링가든과 보구녀관이 사랑받고 있다며 사회공헌부 백길랑 운영파트장은 친절하게 안내한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여성병원이자 이화 의료원의 전신인 보구녀관 건물을 복원하였고 고증을 통해 내부도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했다. 한편 코로나19 이전에는 아트홀에서 수요음악회도 하곤 했다.

예술 산책 외에도 원무과 이화 가족 창구에서 졸업증명서 또는 총동창회의 확인을 통해 이화 동창으로 등록하면 이화가족카드를 발급받고 모든 진료과에서 동창임이 표시되며 진료, 검진, 장례식장 사용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종합건강검진 시 동창 본인과 배우자는 30% 감면 및 진료 재료를 제외한 진료비의 10% 감면,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는 종합검진비의 2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장례식장 사용 시에는 동창 본인의 빈소 임대료 와 안치료 20% 감면, 배우자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빈소 임대료 2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이대서울병원에서 진료나 검진 경험이 없다면 주로 다니던 병원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종합건강검진이나 국가건강검진을 받아볼 것을 사회공헌부 권정희 운영팀장은 제안한다. 건강검진은 새로운 진단 장비와 의료 진에게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한번 와서 경험해 보면 이대서울병원의 매력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주는 코로나19의 시간이 끝나고 좋은 날에 이화 동창들이 예술 산책과 건강을 위해 이대서울병원을 찾는 날이 기대된다.

글·허윤선(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4층 힐링가든(위)  
1층 로비에서 천장을 보면 유리벽으로 하늘이 보인다(아래)

이화비즈 / BT&I그룹 대표 송주온 동창

## “행복한 성공을 하고 싶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갖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토닥이며,  
가족이나 주변인도 존중하면서  
행복한 가정과 세상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지난 연말, 활짝 웃는 화목한 가족의 사진이 한 신문에 나왔다. 29세 청년이 6년간 회사 다니며 모은 3,000여 만 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면서 아너소사이어티(고액 기부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기사였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2013년 아너 회원이 된 WY치과 유원희 원장, 어머니는 2010년 여성 기업인 1호로 아너 회원에 이름을 올린 BT&I그룹 대표 송주온(경영 84) 동창이다. 사진 속에서 훌륭한 남편과 멋진 두 아들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송 동창은 여행사를 창업하고 국내 최대 기업체 전문 여행그룹으로 성장시켰으며 BT&I의 코스닥 상장, 연관업체 인수·합병, SM엔터테인먼트와의 합병 후 SM C&C 운영, SM C&C에서 MICE사업을 분리·양수하여 현재의 BT&I 설립까지, 여행 전문가 그룹의 오피니언 리더이며, 여성 성공 창업 신화의 35년 차 대표 경영인이다. 아직 바람은 차갑지만, 봄기운이 느껴지는 좋은 날, 활짝 열어둔 자택 현관문 안쪽에서 반가운 발걸음으로 나오며 송 동창이 《이화동창》을 맞아준다.

### 강한 자립심과 뛰어난 개척 정신

중학교 때 이민 가 미국에서 대학교에 들어간 송 동창은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워 가족들과 떨어져 이대 경영학과 2학년으로 편입 했고, 대학 시절에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다. “통역하고 가이드 하느라 맨날 판문점도 다니고 했어요. 제가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고, 이 경험들이 나중에 여행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됐죠.”

1984년 이화를 졸업하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에는 고등학생 때 파트 타임으로 일했던 샌드위치 가게를 5만 달러에 인수했다. “고등학생이었던 제게는 쉴 새 없이 일을 시키고 자신은 한가롭게 놀고 있었던 흑인 매니저는 스스로 물러났고, 새로운 직원들과 열심히 일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며 자정까지 가게에 매달렸어요.” 가게는 이전 매출의 4배가 넘는 성공을 하고 1년 반 만에 30만 달러에 팔았다. 수준 높은 서비스로 사업의 가치를 올릴 수 있었던 경험이 후에 경영 철학을 수립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송 동창이 가게를 인수했을 때, 외교관 출신 사업가로 엄격하고 보수적인 아버지는 조신하게 있을 것이지 일을 벌여 집안 망신이라며 집을 나가라고까지 했다. 송 동창은 원하지 않는, 아버지가 정한 신랑감과의 결혼을 서두르는 분위기로 가면서, 아버지를 포기시키기 위해 미스코리아 지역예선 '미스 워싱턴' 선발대회에 참가해 '선'에 올랐다. 뉴스거리가 되고 집안 망신으로 파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되어 청첩장까지 나온 상황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향했다.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와 차를 몰고 가다 보니, 멀리스 공항이 보여, 뭔가에 이끌리듯 들어가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 표를 샀어요."

### 최고의 서비스만을 추구한다

1986년 한국에 도착해 신라호텔에 체크인한 송 동창의 사정을 알게 된 호텔측에서 신라호텔 VIP 코디네이터를 제안했다. 호텔에 투숙하는 귀빈들을 위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면서 송 동창은 여행업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다. 이후 해외 여행자율화 이전, 여행 산업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에 외국인을 위한 전문 여행사를 만들었다. 아버지와 많은 여행을 하고 모임을 다니면서 글로벌 매너가 배어 있던 송 동창은 1987년 25세에 'ITS(이태원 트래블 서비스)'를 설립했다. 이태원 거리, 외국인 회사·학교 등 외국인 전용 장소는 어디든 명함 들고 찾아다녔다. "1988년 올림픽 때는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한국을 방문할 것이 예상되어, 서울 시내 대형 호텔에 블록을 지정해 놓고, 외국인을 위한 숙박 대행을 했어요. 당시 한국에는 없던 개념이라 호텔

매니저들을 설득하는 데 애를 먹었지요." 송 동창의 예감은 적중하여 큰 수익을 남겼고, 자본금 250만 원으로 시작한 ITS는 2년 6개월 만에 외국인 대상 항공권 판매 100만 달러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성장에 한계성이 보이는 시점에서,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회사들을 직접 상대해야겠다고 판단한 송 동창은 1996년 전 세계 100개국 3,000개 지점의 영업망을 지닌 세계 최대 글로벌 여행전문그룹인 BTI(현 HRG)와의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회사명도 BT&I로 변경했다. Global Travel Network를 도입 정착시키고, 24시간 콜서비스, 서비스 비용 후불제, 항공사 제로 커미션 정책에 대비한 수수료 시스템의 국내 최초 도입 등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다. 큰 회사인 GE, HP, 씨티뱅크를 상대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으로 만드니, 다른 외국 회사들도 거래처가 되어 400여 개의 기업체가 고객이 되었다.

"BT&I는 국내 대기업의 여행 계열사도 아니었고, 접대비 Zero, 광고 Zero의 원칙을 지키며 운영을 했기에, 어떤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완벽을 넘어 폭풍 감동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제 전화기는 24시간 열려 있어, 새벽에 외국에서 오는 전화 받는 것은 일상이었고 샤워 중에 통화하다가 휴대폰을 물에 빠뜨린 것도 여러 번이었죠." 이후에는 암웨이의 8,000명 규모 행사를 하면서 MICE(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 전문 여행사가 되고, 2012년 SM엔터테인먼트와 합병 후에는 인바운드 행사를 했다.

"회사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전문 지식을 지닌 뛰어난 직원들 덕분이었죠. 사원을 뽑을 때는 기본을 중시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도덕 시간에 배



아너소사이어티 여성 회원의 날, 취약 계층 여성들에게 선물할  
추석 맞이 상차림 세트 1,000개를 회원들과 준비하며

운, 인사 잘하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거짓 말하지 않기,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처럼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여러 부서를 몇 달씩 근무하게 해서 가장 잘 맞는 부서에 배치하고 거울을 선물했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비춰 보길 바라면서요. 일 자체는 열심히 하다 보면 익숙해지지만 생각이 부정적이면 모든 일이 고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행사 관학교’라 할 만큼 이곳에서 일한 직원들은 다른 여행사의 임원이 되거나 대표가 되었다. 직원을 VVIP로 여기고 복지, 화합에 정성을 다한 송 동창이 큰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다.

### 가슴 뛰는 일은 계속된다

BT&I 대표로서의 활약만을 소개하기도 숨이 차는데, 일반적인 명함의 두 배 크기인 송 동창의 명함에는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짹짜하게 들어가 있다. 의전 서비스 사업체 ‘BE MY CONCIERGE’, 국제회의 용역업체 ‘CHRIS & PARTNERS’, 나눔 사업의 ‘WE SHARE’, 대한민국 1% 명인의 진짜 맛 있는 과일 ‘진맛과’의 회장이며, W아너소사이어티 총 리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중앙회 부회장, 숙대 멘토링 교수, 국제백신연구소 이사다.

SM엔터테인먼트와 합병 후 SM C&C를 운영했으나 오로지 여행 사업에 관심이 있는 송 동창은

2016년에 일부 직원들과 MICE 사업을 분리·양수하여 나왔고, 평소에도 소사장제를 생각해 왔던 터라 생사를 함께한 직원들을 독립시켜 주었다. 티케팅, 행사, 국제회의 등 잘하는 분야가 같은 마음 맞는 직원들끼리 묶어 독립시키고 송 동창은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젊은 친구들이 창업한 몇 개의 회사에 투자하거나 자문하는 일도 하고 있다. ‘진맛과’는 맛있는 과일 선물을 받아서 알게 된 업체로 송 동창이 패키지, 마케팅, 판매 등을 도와주고 있고, ‘진맛과’에서는 송 동창이 아프리카 말라위에 학교 짓는 일에 기부하고 있다. 35년 전문 경영인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고 있다.

“요즘은 후배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제 목표예요. 남편과 함께 말라위에 60개의 우물과 축구장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국제구호단체의 결연 아동 초청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말라위 아동들에게 치과 치료를 해주고 함께 식사하면서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아이들의 꿈이 축구장과 축구공을 갖는 것이라는 말에 시작하게 되었지요.” 식수를 얻기 위해 2시간을 걸어야 하는 말라위의 상황을 직접 본 송 동창은 우물 만들기까지 하게 되었고 그 우물의 유지 보수를 위해 돼지나 염소를 마을에 기부하고 있다. 지난해 도쿄 올림픽에 참가한 말라위 선수들의 마을도 수소문해



2018년도 말라위 축구장 설립과 우간다 우물 기증식에 맞춰 그곳을 방문하여 '기아 대책' 후원자들과 봉사 활동을 했다

서 우물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말라위 방문이 코로나19로 몇 차례 취소됐지만 코로나19만 진정되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 생활 속의 나눔

이러한 나눔의 공식적인 시작은 2010년 2월 14일 자신의 50세 생일에 2,010만 214원을 기부하면서부터다. 2010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아너소사이어티'의 첫 여성 회원으로 등록했다. 이후로 남편 50세 생일, 결혼 20주년 기념일 등 날짜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해 왔다. “의미 있는 날에 기부를 해요. 액수가 얼마나 되었든 생활 속의 기부를 하는 것이죠. 지인이 출산을 하면 저는 선물로 그 아이의 이름으로 기부를 해요.” 새로운 기부문화의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아, 《포브스》아시아판에서 '기부 영웅 48인들'에 선정되기도 했다.

‘어린이 재단’과도 오랜 기간 연을 맺어 왔다. 돋기 시작한 스무 명의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다른 아이들을 돋기도 한다. 여기에 송 동창도 그 아이들 이름으로 후원하고 있다. “참 멋지지요? 이 친구는 키가 180cm에 군대도 갔다 왔고, 여자 친구도 우리 집에 데려온다고 했어요. 제가 한 번 보고 생활력 있고 반듯하

다고 생각되어 OK 사인이 나면 결혼하는 걸로. 하하.” 이를 전에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고 같이 찍은 사진 속 청년을 세상 최고의 보물인 양 자랑하는 송 동창의 얼굴이 행복하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6세 어린 꼬마가 이제는 30세의 청년이 되어 결혼을 생각하니, 송 동창은 친부모는 아니지만 그 역할을 해주고 싶은 생각에 신이 난다.

송 동창은 명품 핸드백을 애써 구입하지 않는다. 옷, 핸드백, 구두는 강남역 지하상가나 아울렛, 바자회에서 산다. 그러나 송 동창에게는 그녀의 마음과 손길이 닿는 일과 사람 모든 것을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 내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이러한 힘은 타고난 선함과 나눔 DNA를 지닌 남편과 아들들이 있는 행복한 가정에서 나온다. 성공하면 행복할까? “뭘 얼마나 이뤄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든 내가 행복해야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성공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화인은 자신에게는 용기를 주고 토탁이며, 가족이나 주변인도 존중하면서 행복한 가정과 세상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글·허윤선(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나와 내 집은 이화를 섬기겠노라”

샬롬!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온 세상이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때 부디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인내하시며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늘의 평안을 잊지 않고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몇 달 특별히 인도와 미얀마에서 들려오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들과 또 의료적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지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견뎌 내는 사역자 가정들의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중보의 끈을 놓지 않으며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지난주 저희는 충남 서천에 있는 시골집에 다녀왔습니다. 고온+다습+모기+벌레와의 친숙한(?) 만남이 있었는데 그리 힘들지는 않았고 오히려 뿌듯한 마음에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드릴게요.

이 시골집은 50년쯤 전에 지어진 흙집인데 20년 전 어머님께서 천국에 가시고 아버님께서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긴 세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청소가 취미인 큰며느리의 대청소 프로젝트(?)에 어쩔 수 없이 엮인 집안 청년들의 노동의 대가로 그나마 본채는 누워 잘 수 있는 집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폐가 수준인 사랑채는 청소를 심히 좋아하는 큰며느리도 어찌할지 엄두가 안 나는 수준이라 계속 부담감만 갖고 있었지요. 부숴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서요. 그런데 지난달 남편이 어릴 적 그 집 지을 때 외할아버지께서 오셔서 대들보에 여호수아 말씀을 기록하신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답니다. 지난 몇 주 대들보에 새겨진 이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무작정 천장을 뜯기로 결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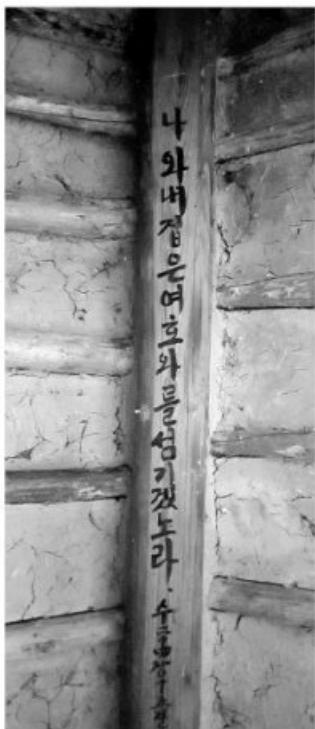
“어디? 어디??” 드디어 천장이 열리고 대들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

오는 순간 저는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도시 여자가 전통 흙집의 대들보 실물을 보는 것만도 신기한데 그 대들보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대들보에 기록하셨을 집안 어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와~ 내가 이런 집안에 큰며느리로 시집을 왔으니 복도 많은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외관은 쓰러져 가는 조그만 흙집일지라도 도시의 그 어떤 화려한 주택보다 한없이 크고 빛나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마터면 그 누군가에 의해 벌써 사라져 버렸을 이 흙집을 지금까지 지켜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열심히 치우고 복원해서 귀중한 신앙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자손 대대로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저희 근황과 기도 제목을 알려 드려요.

글·변희예(교공 83)

### 기·도·해·주·세·요

1. 이주희 – 국제본부 미주 북태평양지역대표 임기를 마치고 6월부터 동북아 살름인 NEAR(North East Asia Reconciliation) Team의 리더로서 새로운 팀을 개척합니다. 오랜 세월 정치 외교적으로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는 지역인데, 화해와 평화, 특별히 다가올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는 준비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C국에서 섬기고 있는 P. 태백에서 섬기고 있는 C가 팀에 합류했는데,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형성으로 좋은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 신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혀락하심에 감사하며. 다음 학기에 가르칠 <선교의 성경적 기초>와 <선교와 지도력>을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과 선교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 키르기스스탄의 카이르백 목사님은 복막에 전이암으로 항암 치료 중인데 최대 효과를 얻고 낙천히 감당할 힘을 주시도록 / 육신의 연약함 중에도 여전히 영혼의 강건함을 유지하고 끊이르진 교회의 리더들이 연합하여 지속적으로 건강한 믿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2. 변희예 – 지난달 국제본부 기도 코디 임기를 마쳤고 팬데믹 상황에서 늘 긴장감으로 국제본부 역할을 감당했기에 몇 달 쉬기로 했습니다. 분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충분히 내서 다음 사역을 위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3. 연로한 아버님(94세)과 친정 어머님(90세)을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혀락하시는 시간 동안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잘 섬기고 싶습니다. 두 분이 자녀들의 돌봄 속에 주님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지내시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총동창회 소식

## 부장회의에서 2022년도 각 부 진행 사업계획안 논의

2월 10일(목) 오전 11시, 2022년도 첫 부장회의가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2021년도 사업평가 및 토의와 함께 2022년도 총동창회 각 부에서 진행할 사업계획안 보고와 예산안 정리가 있었다.

특히 올해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첫 추대하는 졸업 50주년 동창에 대한 명칭을 ‘영원한 이화인’으로 결정하고 추대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관련 TFT를 꾸려 세부 현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한 대외협력처와 동창 주소록 공유 등 업무 협



조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올 10월에 열릴 예정인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관련, 개최지인 남가주 지회 이보경(생미 80) 이사장이 총동창회를 방문하여 임원진과 북미주지회연합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보고하였다.

## 졸업 50주년 동창 대상 ‘영원한 이화인’ 추대식 예정

2022년도 첫 정기 임원회가 2월 17일(목) 오후 2시 30분, 줌(Zoom) 화상회의로 열렸다. 43명의 임원 중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2021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2022년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예산안 통과 등이 이루어졌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2022년 사업계획안을 설

명하며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있다고 안내하였다. 올해 총동창회 신규 사업으로, 졸업 50주년 동창을 대상으로 하는 ‘영원한 이화인’ 추대식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그간 졸업 50주년 동창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지면 좋겠다는 많은 동창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수렴하여 해당하는 동창을 추대하는 ‘영원한 이화인’ 행사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첫해인 만큼 졸업 50주년 이상인 동창도 예외적으로 해당되며 총 인원은

20명 내외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김상희(가관 81) 생활환경대학회장은 동창들에게 ‘올해의 이화인’, ‘빛나는 이화인’, ‘아름다운 이화인’, ‘영원한 이화인’에 대해 구분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알려 주기를 부탁하였고, 이에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아름다운 이화인’ 상은 윤순희 총동창회장 재임 시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오랫동안 섬김과 나눔의 이화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동창을 찾아 격려하며 동창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여

시상하는 것이며, ‘빛나는 이화인’ 상은 김영주 총동창회장 재임 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이화 정신에 입각하여 탁월한 역량으로 공헌한 동창들을 선정하여, 그 공을 치하하고 이화인에게 귀감이 됨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것임을 설명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진들은 졸업 50주년 동창 추대 행사에 대한 동창들의 다양한 기대를 전하며 ‘영원한 이화인’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행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 ■ 대외협력처와 업무협약 체결, 동창 주소록 공유하기로

3월 10일(목) 오후 2시 30분 줌 화상회의로 3월 정기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각 대학 및 각부 보고에 이어 2021년도 결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2021년 결산안을 보고하며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총 수입이 지난해보다 증가해 당해 운영차익이 증가했다고 알렸다. 《이화동창》 발행부수를 늘리고 회지에 평생회비 및 연회비 지로용지를 첨부한 효과가 있었다며 각 단과대 회장과 총동창회 부장들의 적극적 홍보에도 감사를 표했다. 또한 코로

나19로 인해 행사 비용 지출이 줄어든 것과 올해의 이화인(이올) 연합회 발족 이후 견힌 회비가 총동창회 수입으로 잡힌 영향도 일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교 대외협력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교와 총동창회 주소록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보고하며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주소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첨부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3월 8일(화) ‘영원한 이화인’ 관련 준비 모임을 가졌으며 추대 행사 등 세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현재 ‘올해의 이화인’ 및 ‘빛나는 이화인’ 상 후보를 접수 중이라고 알리며, ‘올해의 이화인’을 추천하지 않은 과 회장들에게 조속한 추천 및 접수를 당부했다. ‘빛나는 이화인’ 상 후보는 3월 말까지 접수 받아 4월 중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임원진들은 3월 12일(토) 열릴 신입 동창 환영회 및 정기총회 진행 등 세부 일정을 논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 “눈물로 기도하라”, 2022년 각 대학 및 과 선교부장 모임

2월 22일(화) 오후 1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각 대학 및 과의 선교부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을 가졌다. 줄을 통해 만나는 비대면의 만남이고, 올해 선교부장이 되어 처음 참석한 동창도 있었지만, 각 대학 및 과를 대표하여 섬기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금세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분위기가 되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중국 시짱자치구(티베트)에서 선교 사역을 한 강현숙(교공 72) 목사가 계 7:15-17 말씀을 나눠주며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간증해 주었다. 아래 간증의 내용을 소개한다.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 7:15-17)

강 목사는 올해 선교부장을 맡은 선교부장들에게 이 말씀으로 부탁하며 선포하였다. “우리 눈물을 흘립시다!” 그것은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은혜, 그 특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목사는 1996년에 티베트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 2013년에 은퇴를 하였다. 강 목사는 1982년에 갑자기 주님 앞에 쓰러진 남편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후 7년 동안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였다. 선교를 결단하고 준비하던 남편이 1989년 갑자기 응급실에 갔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소천하는 일을 겪게 되며 장례식장에서 인간이 가진 한계를 느꼈고, 하나님 외에는 육신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에 주님께서는 강 목사를 티베트로 보내셨고 그때 그는 어린 딸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티베트로 떠나게 되었다.

강 목사는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를 통해 티베트에 교육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마을에 학교를 세우며 중국 적십자사의 교육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사역의 규모는 점점 커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후원 교회에 국내 교회 개척 비전을 가진 새 목사가 오면서 선교 재정 후원이 끊어지게 되었고 결국 티베트 교육 선교 사역을 마감하고 귀국하게 되었다. 그리고 후원 교회에서는 강 목사가 계속 교회에 나오면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니 다른 교회로 갈 것을 권하였다. 티베트로 가서 아이들과 헤어지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한국에 다시 들어왔지만, 연결된 교회가 없었다. 울며 지내던 강 목사는 선교수첩을 보내 주던 이화 선교부를 떠올리게 되었고, 2013년에 선교부를 찾아와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선교부장들은 너그럽게 강 목사를 받아 주었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함께 울고 찬양하였다. 강 목사는 잊고 있었던 이화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받지 못했던 위로를 받게 된 것이었다.

현재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강 목사는 밤에 주

님의 말씀을 불들고 현지 아이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강 목사는 선교지에 있을 때 왜 동역자들의 힘든 것을 몰랐을까, 왜 자신만 생각만

했을까 회개하며 눈물로 동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의 양을 채운다고 하였다. 또한 강 목사가 전하는 성경말씀을 듣고 신앙을 지키다가 팝박을 받았던 아이들을 위해서도 운다고 하였다.

우리에게는 정해진 우리가 해야 할 눈물의 양이 있다. 주님께서는 눈물, 고생의 양이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함으로 흘리는 눈물의 양이 차면 주님이 눈물을 씻어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강 목사는 2022년 선교부장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상하고 팝박당하는 자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그 고통에

동참하여, 주님께서 눈물을 씻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간절히 바란다면 간증을 마무리 하였다.

이후에는 새로운 각 대학 및 과 선교부장의 소개와 앞으로의 다짐과 결단,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총동창회 선교부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선교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앞으로 각 대학 및 과에서 활약할 귀한 이화의 선교부장들! 이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각 과의 선교사들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맷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 의대 동창회 주최, ‘스크랜튼 모자 이야기’ 특강

지난 2월 25일(금) 의과대학 동창회에서 이덕주 감신대 명예 교수의 ‘스크랜튼 모자 이야기’ 특강을 줌 동영상으로 진행하였다. 초기 선교사들 중 모자가 함께 사역한 특별한 경우라 하여 현장에서 수고하는 동창 선교사들과 선교부원들에게 이 특강 동영상을 보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중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사역하는 최진아(사복대학원 08) 선교사와 사대 선교부장인 신경자(사회과 교육 87) 동창이 보내온 내용을 살펴본다.

### \*최진아(사복대학원 08) 선교사

‘스크랜튼 모자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다. 기독교 관련 기관이 그 당시 대한민국의 국왕을 통해 국가가 인증

한 기관이 되도록 하신 사건을 돌아볼 때에, 과연 이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사건인지 돌아봐야 한다. 과연 이 일들은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순조롭게 일들이 진행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드러난다.

“국왕의 호위가 아닌 백성들의 호위를 얻고 싶다.” 한 나라의 왕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스크랜튼 선교사,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의료 선교사, 한 의사가 그 좁은 길을 열었고, 목사님들을 통해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스크랜튼 여사를 통해 이 땅의 여성들에게 축복이 임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 바람직한 선교일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까? 독일에서 하이델베르크

의대에 재학하고 있는 내가, 선교사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깊이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2015년 그때를, 확실한 그분의 음성을 기억한다.

나는 사회복지대학원 재학 기간, ADHD 아이들을 위하여 그림책을 접목한 정서지능을 통한 행동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실시하였고, 논문을 쓰고 졸업한 이후, 그 당시 도움이 필요하고 외부로부터 소외되어 보였던 수원 화서동에서 감성발달연구소를 2008년 졸업과 함께 설립하고 그 지역 아이들의 어미가 되고자 하였다. 물론 그 당시 화서동 지역에서는 여러 가정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가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절실했던 기억이 있다. 사랑과 섬김으로 아이들을 돌보았다. 월 10만 원을 받고 아이들을 만나 정서 프로그램을 할 때에, 물질 지원에 어려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자주 업고 센터로 왔다. 그 아이는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 센터에서 하루 종일 ‘깔깔’ 소리를 내면 웃었던 기억이 난다.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화여대를 방문하고 후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다.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센터의 문도 닫게 되었다. 오늘 특강을 들으며 과거 일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게 된다. 무엇이 선교일까? 나는 지금 너무 안일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본다. 독일 선교사로 와서 내 병원 업무와 내 의대 공부, 내 논문과 내 업적에만 얹매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때 아무 조건도 보지 않았던, 나의 개인적 상황을 내려놓았던, 그때 그 첫사랑의 심정을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야 한다.

스크랜튼 모자 이야기, 선교사의 부르심에 순종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본다. 선교사들의 죽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외롭고 쓸쓸해 보이지만, 선교사들의 죽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늘의 영광이요, 평안과 축복으로 바라보게 된다.

나는 ‘스크랜튼 모자 이야기’ 특강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힘으로, 나를 통해서, 선교사의 삶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분의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덕주 교수의 강의를 통해, 선교사의 내 삶을 새롭게 돌아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새 힘을 덧입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 나를 선교사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신경자(사회과교육 87, 사대 선교부장) 동창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는 주님이 이 땅을 위해 미국 믿음의 명문가인 스크랜튼 모자 선교사들의 인생을 받으셨음을 알게 된 시간들. 이화의 탄생은 먼 이국 나라를 위한 한 여인의 삶의 마지막 여행에서 시작되었음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알게 되었다. 또 여자들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는 나라 조선. 이름도 없이 간난이 등등으로 불린 소외되고 불쌍한 어린 소녀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며 시작된 여성 교육의 시초가 이화임을 이덕주 교수의 연구 강의를 통해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한편 지금의 이화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현재 이 땅에서 최고로 혜택받는 여자들의 교육의 터가 되어 있는 이화는 그 시작의 뿌리와 너무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되어 있기에 이화를 탄생시킨 한 여인의 마지막 인생과 기도가 녹아 있는 뿌

리를 기리며 그 정신을 고통받고 억압받는 소외된 자리, 세상에 녹여낼 또 다른 스크랜튼 여사의 삶

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본다.

정리·이수진(조소 05)

## 2022년 총동창회 선교부 겨울 수련회

코로나19 3년차. 아직도 다락방에서의 만남이 허락되지 않는 가운데, 겨우 모임의 명목을 이어가고 있는 나뭇가지 교회에, 가능한 회원 몇 명이 모이고, 줌(Zoom)에 의해 그래도 많은 선교사들이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였다. 배경 사진까지 준비한 이수진(조소 05) 간사의 수고가 언제나 감사하다.

늘 아름다운 찬송으로 기도회의 시작을 열어주는 김세희(대학원 17) 동창. 그가 학생 시절에 새벽 기도를 하며 대강당 앞에서 이화를 위해 읊부짖은 학생회장이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나니 더욱 사랑스럽다.

기도 모임에 거의 매번 1등으로 오는 조성숙(가정 64) 애틀랜타 지회 선교부장은 가장 먼 곳에 있지만 가장 가깝게 느껴진다. 언제나 선하게 미소 짓는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코로나19로 글로벌한 기도 모임이 된 것이 그나마 주어진 감사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아침마다 아름다운 꽃으로 선교부 모임의 카톡

중 한 곳을 열어주는 김귀주(동양 74) 동양화과 선교부장의 사회로 이사야 43장 15–19절의 말씀이 봉독되었다.

안선희 모교 교목실장은 ‘약속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바빌론 포로 귀환 사건은 엄청난 구원 사건이며 새로운 일이다. 출애굽 보다 더 큰 은혜의 사건이다.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에게 이스라엘의 귀환이라는 소망이 실현된다. 이화의 처음도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잡은 데서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많이 연습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대면 모임 참석자 중 노현숙(사회과교육 71)·김귀주·김미순(기독 75)·이명숙(의직 75)·신경자·안영주(유교 88) 동창 등 6명의 회원들이 올 블랙 패션에 초록 리본을 달고 현금 찬양을 올렸다. 밤새 남편과 함께 초록 리본을 만들어온 신경자 동창. 비록 줌 송출 때 여러 가지 미흡함이 있었고 찬양도 부족했지만, 그 마음만은 하나님에 아시고 계시기에 찬양자로 참석한 것만으로도 은혜로웠다. V국의 하윤희(경영 90) 선교사의 현금기도와 설교자의 축도로 1부 예배를 기쁘게 올려드렸다.

2부는 성혜옥(영문 70)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기도로 시작되어 초등교육과 김정효(초교 81)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이화학당에서 오대양 육대주를 향하여–기독교 세계관 가르치기’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8

### 19C 위대한 선교의 세기에 세워진 대학들

◆ 중국: 연징대학과 세인트존스 대학 등 340개의 학교와 13개 대학,  
◆ 인도: 세랑포르 대학, 캘커타 대학 등 712개 학교와 37개 대학,  
◆ 일본: 메이지 대학, 통지사 대학 등 139개 학교와 22개 대학

◆ 단지 한국에만 스크랜튼선교사와 언더우드선교사가 와서 이화학당과 배재학당을 세운 것이 아니었다!

=>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화의 역할과 선교부의 역할을 바라보아야!



김정효 교수 특강

절의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특강이었다. 이화에서 기독교인 교수로 살아가는 간증의 모습이자 기독교 교육의 비전 나눔 시간이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 \* 동창 선교부와의 동역자로서 사역 보고의 의미
- \* 교회와 기독 대학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 회복된 새로운 삶의 즙거를 보여 주라는 소명이 동일하다(Nicholas Wolterstorff).
- \* 종교개혁 이후 거의 모든 대학은 기독 대학이었다(도커리과 모르겐 교수).
- \* 19세기 위대한 선교의 세기에 세워진 기독교 대학들— 옌정, 세인트존스, 캘커타, 메이지, 이화 등(한국의 많은 대학도 기독교에 의해 세워졌다).
- \* 기독 대학이 세속화되어 하나님의 이론을 대적하는 이론이 생산되고 있다. – 포스트모더니즘 등.
- \* 진화론과 고등비평 등 반 지성적인 이론으로 인해 기독교 학문이 추락하게 되었다.
- \* 대학의 구속사적인 교회의 사명을 잊지 말고 분리되지 않도록 기독교적으로 행동하고 동기화하여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자.
-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화학당이 오대양 육대주로 나가도록 기독교 세계관에 통합된 교육이 필요하다.

더 많고 깊은 이야기가 원고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정리되어 전달되었음에도 너무나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선교 주제였기에 은혜가 넘쳐났다. ‘이화의 모든 교수들이 복음화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되었다. 이화의 기독 대학 패러다임을 진단하고 기독 대학으로서



성혜숙 총동창회 선교부장, 안영주·신경자 동창, 선교부 멤버케어의 대명사 노현숙·이명숙·김귀주 동창, 진정한 살림꾼 조선영 동창, 조용한 내조자 김연숙 동창, 카리스마의 전 선교부장 김미순 동창 등이 참석했다

의 지향점과 교수로서의 노력을 과제로 남기며 정말 큰 깨달음을 전해준 귀한 특강이었다.

김유선(대학원 04) 캄보디아 이화스렁학교 교장의 간증이 준비되었으나, 마침 첫 고등학교 졸업식이라는 정말 의미 있고 감동적인 졸업 시간과 겹치면서 바쁘게 잠깐 들어와서 나누는 그 자체가 생생한 선교 보고가 되었다. 이제는 이화스렁 대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교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총동창회 선교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중보기도를 다 함께 큰소리로 기도드렸다. 이어 조선영(영문 74) 부장의 회계보고를 통해, 작지만 조용하게 이화의 선교를 돋고 있는 알찬 살림에 대해 알게 되었고, 2022년 선교부 연간계획을 나누며 특강을 마무리하였다.

추운 날이지만 좀이라는 대안이 주어져서 글로벌하게 모일 수 있었고, 너무도 귀한 설교말씀과 강의,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참여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이화 총동창회 겨울 수련회’를 아름답게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글·안영주(유교 88)

구글 UX 수석 디자이너 김은주 동창

## 솜털처럼 가볍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어



모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김은주(생미 96) 동창은 졸업 후 디지털조선일보와 CJ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다 27세에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가면서 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미국 일리노이 공대 디자인스쿨 유학 후 블랙웰컨설팅, 모토로라, 웰컴 등 글로벌 기업에서 커리어를 쌓고 귀국,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2015년 원형 스마트워치 개발로 'IDEA 디자인 브론즈상'을 수상했다. 2016년에는 '웨어러블 산업을 이끌 글로벌 18인의 여성 리더'에 선정되었고 그의 열한 번째 직장인 구글에서는 '(인공지능) 어시스턴트'의 UX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며 2020년 '올해의 디자이너'에 뽑혀 다시 한 번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임을 입증했다.

쟁쟁하고 화려한 경력 뒤에는 어려움과 고민도 있었다. 작년에는 '프로 이직리' 이자 '구글리'로서의 맷집과 아팠던 경험을 녹여내 청춘을 위로하는 책 『생각이 너무 많은 서른 살에 25년간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일하며 배운 것들』을 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 남편, 쌍둥이 두 딸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김은주 동창의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서면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일하고 싶은 구글의 문을 두드리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하는 나만의 루틴이 있어요. 그 해에 한 일을 요약해서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지인들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상상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해요. 2017년 12월에도 여느 해처럼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미래를 상상해 봤죠. 그때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어요. 저는 디자이너로 은퇴하고 싶은데 점점 관리자 역할이 많아지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학원 없이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버거워했고요. 미국이라면 곧 중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나이여서 여러모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미국에서 대학원 시절에 만나 모토로라와 삼성까지 함께 다니면서 친하게 지낸 친구가 구글

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 일부 메시지를 받고는 구글 인사팀에 추천해 주었어요. 그렇게 구글과 얘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특별히 구글에 가야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지면서 바로 구글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구글의 '(인공지능)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 부서에서 UX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요? 덧붙여 구글에서의 하루가 궁금합니다. 주로 무슨 일을 하며 보내나요?**

구글에서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인공지능 대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기계가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만드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아요. 사람들 대화를 잘 들어보면 의식의 흐름대로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도 알아듣고, 심지어 눈빛만 보내도 서로 의미 전달이 되기도 하잖아요. 전라도 분들인 저희 부모님이 ‘거시기’로 모든 대화가 가능하신 것처럼요.(웃음) 인간의 대화는 오감을 활용하고 사회적인 맥락과 개인의 언어능력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컴퓨터가 대화에 필요한 시각 요소, 음성 요소, 촉각 요소를 고려해 상황과 맥락에 맞는 반응과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2020년 3월부터 재택근무 중이에요. 벌써 2년이네요. 재택근무가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는데 이젠 집 한편이 제 사무실이에요. 아침 7시쯤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 싸주고 8시에 등교시키면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 시간을 좀 가져요. 출근길 운전하는 시간이 없어져서 그것만으로도 아침이 훨씬 여유로워요.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보통 오후 5시, 늦어지면 6시 정도면 일을 마무리해요. 저녁 해먹고 TV를 보거나 인터넷도 하면서 놀죠. 뒷마당 작은 텃밭에 상추와 부추 새싹 올라오는 거 보면서 헬링도 하고요. 밤 10시에는 인터넷으로 북클럽에 조인해요. 1시간 동안 같이 영어 원서를 소리 내서 읽는 모임인데 영어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는 일타쌍피 클럽이죠. 주중의 일과는 매우 반복적인 편이고, 주말에는 산이며 바다며 놀러 다녀요. 미국 생활은 한국에 비해 훨씬 단조로운 편이에요.

#### UX 디자이너, 디자인 통해 소비자의 행동 변화 이끌어내는 사람

**용감(과감)함과 도전 정신이 지금의 김 동창을 있게 한 밑거름이 아니었을까 짐작됩니다. 본인에게 그런 성향이 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혹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자질이 발휘된다고 생각하나요?**

전 제가 용감하거나 도전 정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질 않아서 간혹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그런가?’ 하고 저를 되돌아봐요. 저는 성격이 급해요. 일을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요리도 엄청 휘리릭 빨리해요. 저는 짖증을 자주 내요. 비싼 옷을 오래 입기보다는 저가 옷을 돌려 입는 편이지요. 재미없는 일을 잘 못해요. 그런데 재미있어 보이는 일은 에너



구글 사무실 벽에는 해야 할 일과 진행 중인 일, 검토 중인 일들이 적힌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다.

지가 넘쳐요. 과거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어요. 지나간 일을 잘 잊는 편이에요. 책임감이 강해요. 한다고 약속한 일은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요. 남을 시키는 것보다 직접 하는 걸 좋아해요. 남들이 보면 사서 고생한다고 하지만 전 그게 속 편하고 좋아요. 제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건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뭔가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용감하며 에너지가 넘쳐 보이나 봐요.(웃음)

**『생각이 너무 많은 서른 살에게』에서 'UX 디자이너는 기술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다', '디자이너는 감정의 촉을 갈고닦아야 한다' 등 인터렉션 디자인 분야에 대해 말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두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일 텐데요. UX 디자이너의 역할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이너의 역할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User Experience)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거든요. 이 분야와 용어가 생긴 지는 20년도 넘었는데 여전히 뭘 하는 디자이너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UX 디자이너라고 저를 소개하면 '디자이너'라는 말 때문에 집 인테리어 디자인을 물어보는 분도 있고, 그림을 그려달라는 분도 있고, 디자이너가 패션 감각이 왜 그렇게 없냐고 편찬을 주는 분도 있어요.(웃음)

상업디자인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만족시켜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인데 시각적으로 예쁘다고 소비자들이 무조건 행동을 하진 않거든요. 쉬운 예로, 교육용 학습지의 경우에 실제 학습지를 쓰는 사람은 학생이지만 돈을 가진 구매자는 부모이고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유통구조에서 학습지를 판매하는 판매처의 관심은 또 다르고요. 그러니 학습지라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소비자군도 매우 다양하죠. UX 디자이너는 소비자와 접점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용자 경험'을 예측하고 설계하고 연구하고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 UX 디자이너 중에는 인지심리학을 공부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학부 때 심리학을 부전공하고 싶었을 정도로 관심이 많았었고요. 소비자 행동의 저변을 이해하고 심리를 분석해서 디자인을 통해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게 UX 디자이너 역할의 핵심이죠. 그러려면 사람의 감정을 읽는 촉이 발달해야 하고요.

#### **'뭐든 해도 된다'는 기업환경이 창의력의 원천임을 배워**

**모토로라, 퀄컴, 삼성전자 등 11개 기업을 거치며 커리어를 쌓았어요. 각 회사를 거칠 때마다 얻게 된 자신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컸던 경우도 있었나요? 덧붙**

## 여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기업문화를 가진 구글에서 일하면서 얻은 것이라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자산은 ‘까짓것, 안 죽는다!’는 뱃심?(웃음) 여러 회사를 다녀 보니 저 스스로 직장인(월급쟁이)보다는 직업인(디자이너)으로 남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확고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회사는 나에게 월급을 주는 곳인데 직업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진 않거든요. 내 능력을 유지하면서 회사와는 적당한 썸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효율의 극대화’가 기업의 성공 기준이 되면 창의적인 발상이 불가능해요.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모든 공정 과정을 규격화해야 하거든요.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비효율적이고 낯설고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혁신을 위해선 창의력과 자발성이 필요한데 이건 사람의 정신세계(마인드)거든요. 강제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극도의 효율성은 직원을 순응하게 만들기 때문에 대량생산 시대나 특정 산업에는 적합하지만 혁신이 필요한 기업에는 좋은 게 아닌 거죠. 뭐든 해도 되는 것과 뭐든 하면 안 된다는 환경(혹은 시스템)이 사람의 두뇌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구글이 가진 자율성, 오픈성,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는 내가 원하면 뭐든 해도 된다는 가능성을 만들어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고, 내가 시도한 일이 잘못되더라도 거기서 배운 걸 나누면 되니까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리는 거죠. 저는 이런 ‘해도 된다’라는 마음이 제가 구글에서 일하면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싶어요.

‘실패가 기준점’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글이 유독 기억에 남는데요, 다시 도전할 진짜 회복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또 실패를 받아들이는 데는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생각을 듣고 싶어요.

주로 자잘한 실패여서가 아닐까요?(웃음)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도전’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너무 거창한 느낌이라서요. 거창한 일은 시작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실패하는 것도 무섭고 실제 잘 안 됐을 때 상처도 크거든요. 애당초 도전이라고 생각한 일이 아니라서 실패라고 느끼지 않는 게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도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시작해요. 구글 아직도 오랫동안 준비하거나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친구한테 보낸 연말 메시지가 시작이었거든요. 책도 처음부터 출간할 작정이었다면 엄두가 안 났을 거예요. 그냥 블로그에



구글 본사(캘리포니아 마운틴뷰) 캠퍼스 공룡 조형물 앞에서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브런치 작가 신청했다가 떨어진 게 실패라면 실패?ㅎㅎ) 글이 쌓이다 보니 연말에 지인분들께 소식 전하다가 출판사와 연결이 되었고요. 가볍게 시작하면서 '아님 말고'라고 생각한 덕분에 진짜 '실패'라는 느낌이 안 들고 좌절도 크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식장에서 신부 입장장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아님 말고!'(웃음)

### **공감 댓글 보며 독자들의 마음과 닿는 느낌에 힐링 받아**

**위의 저서를 통해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저질러라)' 등의 메시지가 큰 공감을 얻고 있어요. 특히 청춘들의 반응도 굉장히 한데요, 메시지 가운데 어떤 지점이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불러온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독자들의 댓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요.**

많은 분들이 제 글이 솔직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 책을 읽고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도 많고요. 25년 동안 11개의 회사 경험이 있고, 영어 한마디 못 하지만 미국 와서 좌충우돌하면서 적응했고,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제 얘기라서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나 봐요. 저는 그냥 일기 쓰듯이 제가 겪은 일, 감정, 다짐하는 생각을 쓰거든요. 전문작가가 아니다 보니 글이 좀 날것이고 투박하기도 한데, 그래서인지 옆집 언니나 친한 직장 선배가 하는 얘기 같다는 후기 글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글 쓰기 칭찬은 '글이 쉽고 부담 없이 잘 읽힌다'는 평이었어요. 잘 읽힌다는 건 마음이 열리고 공감이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마음으로 쓴 글이 독자의 마음과 닿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제가 더 힐링이 돼요.

**마지막으로 개인적로든 일적으로든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대중 혹은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당분간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낼 것 같아요. 회사 일 열심히 하고 글도 열심히 쓰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강연도 하고요. 3년 후면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 집을 떠날 텐데 그 이후엔 저도 좀 자유롭지 않을까 기대 중이에요.(웃음) 그땐 재택근무가 더 자리 잡을 테니 여기저기 전 세계 도시를 다니면서 살아 볼까 싶기도 해요.

이 넓은 세상에 못 가본 곳이 너무 많거든요.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다는 건 고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일이지 싶어요. 어느 특정 이미지가 시간에 박제되는 거니까요. 기억은 기억자의 것인데 그 안에 박제된 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제가 대중의 기대나 기억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고요. 굳이 밝히자면 솜털처럼 가볍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어요.

글·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 모교 소식

## 의과대학 연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동창·교원·기업 후원 잇따라

오혜숙(의학 78) 동창과 피상순(의학 84) 동창이 1억 원을 모교 의과대학에 기부했다. 먼저 오혜숙 동창은 '이화 메디·헬스케어(Medi·Healthcare) 클러스터 기금'과 '오혜숙의학장학금'에 각 5,000만 원, 총 1억 원을 후원했다. '이화 메디·헬스케어 (Medi·Healthcare) 클러스터 기금'은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 중개 연구와 개인 맞춤 의학 활성화를 위한 신촌캠퍼스, 이대목동병원, 이대서울병원과 함께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에 사용되며, '오혜숙의학장학금'은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의료환경을 선도하는 우수 융복합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쓰인다. 오 동창은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고, 후배들이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며 나눔의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날 피상순 동창은 '이화 2030+ 발전기금' 및 '의과대학발전기금'에 각 5,000만 원, 총 1억 원을 전달했다. '이화 2030+ 발전기금'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도연구 분야 10개, 미래형 도전연구 분야 10개를 집중 육성하며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화 비전의 밑거름으로 사용된다. '의과대학발전기금'은 의과대학이 이화 발전에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의 연구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피 동창은 "이화여대에 재학하며 많은 분들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장학금을 받으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이화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돌려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기부 소감을 전하며 모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정미라(의학 83) 동창이 의과대학 후학 양성을 위해 '정미라장학금' 1억 원을 후원했다. 정 동창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 없이 많은 것을 받아 기회가 되면 갚겠다고 생각해 오던 중 후세대를 키우는 일에 쓰고자 장학금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소망을 밝혔다. 또한 11월에는 이대목동병원 전공의협의회가 모교 의과대학의 발전과 후배 의사 양성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의과대학발전기금' 4,400만 원을 기부했다.

한편 12월 17일(금) 모교는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이하 SCL)와 공동연구 협약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국내 최초 검사전문기관으로 설립되어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으로 자리 잡은 SCL은 모교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연구 인력 교류 및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등 교류 증진과 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SCL이 '의과대학연구기금(Ewha Medical Research Fund)'을 후원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10



피상순 동창, 김은미 총장, 오혜숙 동창(왼쪽부터)

김은미 총장(왼쪽)과 정미라 동창

월 신설된 '의과대학연구기금'은 2개월 만에 누적 약정액이 6억 5,000만 원을 돌파했다. 첨단 의학과 의과학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의과대학연구기금'은 하은희 의과대학장이 1억 원을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씨젠의료재단과 심혈관연구원 등 기업 후원 5억 원, 의대 교수 후원 1억 5,000만 원이 모였다.

## 미래를 선도할 이화형 교수학습 모델 'THE BEST' 시범 운영

모교는 2022학년도 1학기 'THE BEST' 수업 모델을 적용한 교과목의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THE BEST'는 이화 고유의 교육 모델을 수립하고, 에듀테크 기반의 교수-학습 인프라 혁신을 선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수학습 모델 구축 사업이다.

교육혁신센터(센터장 임규연)는 지난 11월부터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022학년도 1학기 융합 수업 188개, 원격 수업 43개 교과목을 신규로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신청이 쇄도해 총 231 개의 융합·원격 수업이 신규 개설될 예정이다.

'THE BEST' 수업모델에서 대면(對面) 수업은 지정된 시간/강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교

과목, 융합(融合) 수업은 강의실 밖 온라인 개념학습, 강의실 안 적용 학습이 일어나는 융합형 교과목, 원격(遠隔) 수업은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등의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융합 수업은 수업의 15% 이상 70% 미만을 온라인 개념학습으로 운영하되, 15주 중 5주 이상을 강의실 밖 온라인 개념학습(75분)과 강의실 안 적용 학습(75분)으로 구성한다. 개념학습의 경우 동영상, 온라인 활동 등 온라인 녹화 강의를 통하여 진행하며, 적용학습의 경우 그룹활동, 심화연습, 피드백 활동 등 개념학습에 대한 적용 및 활용이 강의실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존의 블렌디드 러닝에 비해 융합 수업은 학습 주제에 따라 온라인 개념학습과 오프라인 적용학습이 화학적으로 연계되어 학습 성찰과 전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 이화 세이프 캠퍼스 (Ewha Safe Campus) 구축

모교는 본격 대면 수업 시행에 대비하여 코로나

19 진단 검사소인 '이화 세이프 스테이션'을 학생문화관 옆에 설치했다. 학생문화관 옆에 설치된 '이화 세이프 스테이션'은 2월 22일(화) 기숙사 입사생과 관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3일(수)부터는 전체 학생 및 교직원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전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교 구성원 누구나 주 1회, 백신 미접종 구성원들은 주 2회까지 상시적으로 비용 없이 검사받을 수 있다. 학교 포탈 시스템을 통해 검사 예약 후 검사소를 방문하면 의료인의 지도 감독하에 검체를 자가 채취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된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선별 진료소와 같이 전문가 채취를 통한 PCR 검사를 통해 확진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이 나올 경우 바로 서대문보건소로 통보하는 등 철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모교는 작년 12월부터 질병검사 전문기관 (재)씨젠의료재단과 ‘이화 세이프 캠퍼스’ 구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2월 17일(목) (재)씨젠의료재단과 기부 협약을 맺고 10만 회 분량의 진단검사 시약 및 제반 비용을 현물로 기부받았다.

ECC 이삼봉홀에서 개최된 '(재)씨젠의료재단 코

로나19 진단검사 현물기부식'에서 김은미 총장은 “씨젠의료재단이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검사소 지원을 신속하게 현실화해 주셔서 일상회복을 기원하는 모든 이화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천종기 씨젠의료재단 이사장은 “2년 전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작해 지금 까지 4,000만 명 이상 검사를 실시한 씨젠은 이화여대가 더 안전한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고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현물기부식

## 세상을 향한 첫걸음,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모교는 2월 28일(월) 오후 2시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2,511명, 석사 1,029명, 박사 140명 등 3,68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은미 총장은 학위수여식사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정보, 물품과 서비스, 자본, 사람의 초연결성이며, 이러한 변화는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AI의 발전이 불평등을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인간’ 중심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도전해야 한다”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솔루션을 찾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해 헌신하는 데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재천 석좌교수가 축사를 전했다. 최재천 교수는 이화의 가치는 Excellence(탁월함), Womaness(당당한 여성성), Humility(겸허함), Adventure(모험 정신)에 있다며 “이화는 그저 여자대학으로 훌륭한 대학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에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탁월한 대학”이라고 강조하고 “이 위대한 대학의 졸업생으로서 이 사회의 어느 곳에 있든 평범하게 살지 말고, 항상 겸허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도전을 거듭해 끝내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고 소중한 분이 되길 바란

다”고 축복했다.

학부 졸업생 최연소자는 만 20세 나이에 졸업장을 받게 된 컴퓨터공학전공 이경민 동창, 최고령자는 금혼학칙으로 학교를 떠났다가 재입학해 만 63세로 졸업하는 간호학부 백미옥 동창이다. 한편,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수석 합격의 영

광을 차지한 간호학과 김희진 동창도 함께 졸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등 5개국 출신의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장학생 6명도 졸업장을 받았다.

## ■ 2022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환영행사 개최

모교는 2월 25일(금)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2022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하고 3,495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김은미 총장은 “여전히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단지 이화라는 이름만으로 불필요한 편견과 잣대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지만 이화는 이에 굴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제 이화인이 된 여러분도 스스로와 이화공동체에 대한 단단한 믿음으로 더욱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모교에 입학하는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을 배려해 영어로도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부총장과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 학장 등 주요 보직교수 소개 시간이 마련됐으며, 남성 교수중창단의 축가도 이어졌다. 모교 현직 교수들로 구성된 남성교수중창단은 1997년 결성 이래 매년 입학식 때마다 공연을 펼쳐왔으며, 올해는 〈축복송〉, 〈상상더하기(라붐)〉, 〈넥스트레벨(에스파)〉을 메들리로 멋지게 소화했다.

이어 신입생 대표로 AI융합학부 최다현 학생과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EGPP)으로 선발된 엘텍공

과대학 쇼호나 사파로바(Safarova, Shohona) 학생이 선서를 통해 이화의 자랑스러운 학생으로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올해 학부 신입생은 외국인 특별전형 74명을 포함한 총 3,495명이며, 약학대학 입학생은 120명이다. 학부 신입생들은 앞으로 4년간 15개 대학(AI융합학부 포함), 75개 학과 소속으로 대학생활을 보내게 된다. 또한 이번 입학생 중에는 7개국 출신의 EGPP 장학생 10명(학부 5명, 일반대학원 5명)이 포함돼 있다.

입학식에 이어 2022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환영프로그램 ‘Welcome to Ewha – 웰컴 이화 카페’가 방영됐다. 올해는 ‘웰컴 이화 카페’의 콘셉트로 스브스뉴스 PD 이은재(사학 16) 동창이 참여하여 재학생 패널 4인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재학생 패널 4인은 22학번 신입생들이 직접 제출한 질문을 기반으로 생생한 캠퍼스 라이프와 대학생활 노하우를 들려주었다. 특히 <유퀴즈 온 더



웰컴 이화 카페

블록>에 출연하며 독특한 이력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주목받았던 유꽃비(중문 08) 동창이 특별 게

스트로 출연한 이날 행사 영상은 유튜브에서 1만 7,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 2022학년도 공립 교원임용시험에 이화인 316명 합격

2022학년도 공립 교원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결과 모교 졸업생 316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번 교원임용시험에서는 유치원교사 16명, 초등교사 61명, 중등교사 206명을 비롯해 보건(3명), 사서(1명), 영양(1명), 전문상담(28명) 등 비교과교사를 포함 총 316명의 이화인이 합격의 기쁨을 안았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김소리(특교 22) 동창

이 유아특수교육에 수석 합격했으며, 경기지역에서는 민현주(유교 22) 동창이 유치원교육 수석을, 김세한(사회과교육 21) 동창이 일반사회교육 차석을 차지했다. 김소리 동창은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이 통합환경에서 적절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앞으로 더 깊은 공부를 통해 특수교육을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현주 동창은 “오래도록 교육 현장에 남아 기본이 바른 유아교육을 해나가고, 아동의 권리 보장과 행복을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 당신을 후원이사로 모십니다

총동창회는 24만 이화 동창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에 힘입어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및 모교발전기금 마련 등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화동창》회보 제작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이화 동창을 소개하고 격려하며 섬김과 나눔의 이화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모교 발전 및 총동창회 후원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화 동창 여러분께 총동창회 후원이사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총동창회 후원이사는 2년 임기이며, 연 100만 원(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총동창회는 후원이사 여러분을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모교에서도 후원이사님들의 후원에 깊이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자종합대학을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동창으로서 이화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후원이사 가입을 통해, 이화의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고 진선미의 이화 정신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의 총동창회 사무실 / 전화: 02-3277-3386~7 / E-mail: ewhaalum@ewha.ac.kr

# 대학(원) 소식

대학(원) 순서로 게재

## 인문과학대학

호 회장에게도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회장\_\_이정화(독문 74)

### 학관 리모델링 및 재건축기금 모금 현황 보고

인문과학대학 동창회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다. 장소는 서울 장충동 소재 반얀트리 클럽이었으며, 2022년 2월 17일(목)에는 국문과·영문과·기독교학과 회장이 참석하고, 2월 21일(월)에는 중문과·불문과·독문과·철학과 회장이 참석하였다. 이정화 회장과 안영호(중문 85) 신임 회장은 두 차례 모두 참석했다. 이정화 회장은 2019년 대외협력처의 설명회 이후 2022년 2월까지의 기금 모금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각 과 회장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대외협력처에서 보내온 감사 선물을 전달했다. 학관 공사는 코로나19 등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23년 3월에 완공 예정임을 알렸다. 인문과학대학 각 과 회장들은 이임하는 이정화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안영



두 차례로 인원을 나눠 동창회 모임을 진행한 인문과학대학 동창회

## 조형예술대학

회장\_\_신영선(장미 88)

### 2021 ONLINE GLOBAL 녹미전

조형예술대학 동창회(녹미회)는 2021년 12월 18일(토)부터 2022년 12월 17일(토)까지 ‘2021 ONLINE GLOBAL 녹미전’을 개최한다. ‘녹미전’은 5년에 한 번 열리는 조형예술대학 동창회 정기 동창전이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녹미회는 예술의 힘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주고자 녹미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국내 8개 전공(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도예과, 섬유예술과, 생활미술과, 장식미술과\_패션디자인전공, 장식미술과\_공간디자인전공)의 동창들과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활동 중인 동창들이 함께 모였다.

‘2021 ONLINE GLOBAL 녹미전’의 주제는 ‘잇다’이다. 동창들의 학창 시절은 각기 다르고 전공도 다르며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더라도, 이화의 큰 품 안에서 서로를 이어 줌으로써 예술로 하나가 되고자 하였다.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전시회는 3D와 VR(가상현실) 기술 등을 접목해 작품을 보다 생생하고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 온라인이라는 장점을 살려 세계 어디에



온라인 전시로 녹미전을 개최한 조형예술대학 동창회

서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오픈한 지 사흘 만에 전 세계에서 약 1만 명이 접속해 관람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12월 18일(토) 열린 전시회 오프닝도 줌(Zoom)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녹미회의 이름에 맞게 녹색의 드레스 코드를 정하였으며, 100여 명의 동창들이 인터넷상이지만 한 자리에 모여 모니터의 화면에 녹색의 물결을 이루었다. 선교부장의 기도로 시작하여 총동창회장, 학장의 축사와 녹미회 활동 소개, 녹미회 역사 영상 관람 및 교가 제창까지 서로와 서로를 이어 주는 뜻깊고 감동스러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021 ONLINE GLOBAL 녹미전'은 녹미회 홈페이지(<http://ewhanokmi.co.kr>)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모교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국·공립 도서관과 국내 주요대학 도서관에서도 녹미전도록을 열람할 수 있다.

문화, 자문위원회, 각 위원회 단체 대화방을 통해 행사와 소식을 알리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에 개설한 동창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있다. 송년회와 학술 심포지엄을 열지 못한 대신, 강의 동영상을 만들어 다 같이 보고, 1년의 회무 보고를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모든 동창들에게 보냈다. 의과대학 멘토멘티 ELF(Ewha Linkage Fellowship)의 본과 2학년 학생 5명과 동창 2명이 함께 만든 크리스마스 축하 동영상은 모든 동창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선사했다.

제23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이화의 대선배이자 조선 첫 여성 유학생이기도 한 의사 박에스더를 기리며 박에스더기념사업회를 시작했다. 먼저 매달 열리는 상임이사회 때 선진들에 대해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메리 스크랜튼 학당장, 닉터 윌리엄 스크랜튼, 닉터 로제타 훌, 여의사 박에스더, 룰루 프라이 학당장, 앤리스 아펜젤러 학당장에 대해 리뷰를 하고, 미국 최초의 여의사 엘리자베스 블랙웰, 존 가우처 목사, 이수정 선교사에 대해 리뷰하고 동영상을 만들었다. 올해 서거 100주년을 맞는 닉터 윌리엄 스크랜튼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자, 온라인 줌(Zoom) 특강을 준비했다. 2022년 2월 25일(토)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스크랜튼」의 저자이며, 초기 조선 선교 역사 전문가인 감

## 의과대학

회장 \_\_ 성시열(의학 81)

###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

의과대학 동창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의 폭을 넓혔다. 동기회장 단체 대화방에는 5회 선배부터 69회 후배까지 함께하고 있으며, 지회장, 고



온라인 줌 특강으로 이화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 의과대학 동창들

신대 이덕주 명예교수를 초빙하여 ‘스크랜튼 모자(母子) 이야기’를 듣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강의에는 총동창회와 모교 교수들, 그리고 선교사들과 타교 출신 기독 의사들이 참석했으며,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관심 있는 누구든 볼 수 있게 하였다. 이화에 대해 깊이 알아 갈수록, 귀한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나가는 것이 이화가 발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136년 전 이 땅에 뿌리 내린 이화 정신은 앞으로도 여전히 이 나라를 지키고 살리게 되리라 기대한다.

## 약학대학

회장\_\_박병희(약학 84)

### 신입 동창 환영회 및 동창 명부 배포

2021년 12월 14일(수), 약대건축위원회 김순영(약학 62) 위원장과 이정자(약학 66) 총무, 정용희(약학 75) 부위원장, 그리고 박병희 회장과 이윤실(약학 85) 약대 학장이 김은미 총장실을 방문하였다. 약학 대학이 4년제에서 6년제로 학제가 바뀌어 2021년과 2022년에 1학년 120명, PEET로 3학년 120명, 총 240명의 입학생이 들어옴에 따라, 공간의 혐소로 인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이에 김은미 총장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다.

2022년 1월 25일(수), ‘이화약대 Powerful Alumni’ 동창 명부를 만들었다. 각 기에서 후배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선배 약사와 매년 졸업하는 후배 졸업생들을 연결하여 후배들의 진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신입 동창 환영회를 열고 졸업 동창들을 축하한 약대 동창회

위해 만든 동창 명부는 ‘구글 폼 응답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문 작성 형식으로 제작했고, 신입 동창 환영회에서 동창들에게 공유했다.

2022년 2월 22일(수)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2022 신입 동창 환영회’가 있었다. 박병희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환영회에서 김제원(약학 22) 동창 외 33명의 올해 졸업 동창들과 이윤실 학장, 김순영 고문 등 15명의 약대 임원들이 모여 이제 사회로 첫발을 딛는 동창들을 격려하고 축하해 주었다. 성악가의 축하 연주와 새내기 약사들을 위한 선배들의 강의가 이어졌고, 제1회 신입 동창 총회에서 김제원 동창이 약학 73기 회장으로, 문영신(약학 22, 부회장)·한선정(약학 22, 총무)·서정혜(약학 22, 감사) 동창이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2월 24일(금), 설원복지재단 ‘안양의 집(이정대 원장)’에 학자금을 후원하였다. 김영진(약학 90) 사업부장과 권희준(약학 90) 사업부차장이 준비한 떡과 빵, 과일과 함께 후원금을 ‘안양의 집’ 3명의 학생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안양의 집’의 초대 이사장은 2019년 ‘아름다운 이화인상’ 받은 사지숙(교육 55) 동창이다. 한편 약학대학 15기 동창(1964년 졸업) 38명은 2021년 11월 19일(토)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팔순 기념 축하 모임을 겸하여 제57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 과(학부) 소식

과(학부) 순서로 게재

## 국어국문학과

회장\_\_ 김경희(81)

### 임원회의에서 새 회장 선출

국어국문학과 동창회 임원진은 2021년 12월 1일(수) 임원회의를 열었다. 회계 보고와 더불어 김경희 동창을 새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2년 동안 수고한 송동수(74) 전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임원진의 출발을 다함께 축하해 주었다.



송동수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국어국문학과 동창회

## 독어독문학과

회장\_\_ 이지연(75)

### 영원한 이화인·올해의 이화인 선정

독어독문과 졸업 30주년 기념 '올해의 이화인'에 황지숙(92) 동창이 선정되었다. 졸업 당시 '김애다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황지숙 동창은 26기 동기들



황지숙 동창을 축하하는 독문과 26기 동창들

과 이지연 회장의 따뜻한 축하와 응원을 받았다.

한편, 졸업 50주년을 맞는 '영원한 이화인'에는 김영미(72) 동창이 선정되었다.

## 사회학과 소식

회장\_\_ 신혜령(75)

### 고 이효재 교수 추모집 출판 기념회 열어

2021년 11월 29일(월) (사)한국가족문화원이 주최한 고 이효재(문과 45입) 교수 1주기 기념 추모

집 출판 기념회가 모교 대학원 별관에서 열렸다.

1958년 모교 사회학과를 개설하고, 1977년 모교 여성학과를 창설한 고 이효재 교수의 삶을 기리는『함께를 향한 아름다운 삶』이라



고 이효재 교수 추모집

는 제목의 추모집에는 한국 사회의 가족과 여성을 변화시키고자 애써온 고 이효재 교수에 대한 사회학과 동창들의 생생한 증언이 실려 있다. 사회학과에서는 신혜령 회장과 김자혜(74)·오숙영(77) 전 동창회장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으며, 추모집 판매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11월 25일(목)에 일산 마두동에 위치한 현경원(서양 85) 동창의 작업실을 동창회 임원들이 방문하여 작가 아카이브, 제작 중인 작품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었다. 서양화과 동창회는 차후 동창의 작업실과 연구실, 동창이 운영하는 갤러리 방문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의 장을 갖고 이를 동창들과 다양한 미디어로 공유할 예정이다.

## 서양화과

회장 \_\_ 조은정(85)

## 조소과

회장 \_\_ 박신정(85)

### 동창 작업실 방문 프로젝트 재개

2022년 2월 26일(토) 오전 11시에 서양화과 동창회 활동 보고회를 가졌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줌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프레젠테이션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서양화과 동창회가 수행한 활동 결과를 동창들에게 알렸다. 이대서울병원 후원을 위한 아트페어와 기타 업무, '이서전', 선배 구술 프로젝트, 모교 행사 올해의 이화인, 비전 이화미술인전, 졸업전시회, 모교 이젤 기증 및 바자회 등 동창회 행사에 대한 보고와 함께 회계결산 보고를 하였으며, 2022년 예정 행사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한편 그동안 팬데믹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던 동창의 작업실 방문 프로젝트를 재개하였다. 2021년

### 조소과 총회 개최

제18대 조소과 총회를 2022년 2월 14일(월) 스페이스 다온 세미나실과 줌(Zoom)으로 동시에 개최하였다. 운영위원과 임원진 및 동창들의 참석하에 2021년 감사 보고와 회무, 재무 보고가 있었고 2022년도 조소과 동창회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2022년 ESAarts Award에 대한 안내와 제39회 이화조각회 정기전 전시 계획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이화조각회 정기전은 5월 금보성 아트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1년 ESAarts Award를 수상한 동창 작가 그룹 '조각그룹 비'의 동영상을 K-Contemporary Sculpture of EWHA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였고,



졸업전시회 축하 행사에 참석한 서양화과 동창들



스페이스 다온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진행 중인 조소과 동창들

대학원 전시 그룹으로 수상한 ‘기이한 감각국전’이 2022년 1월 19일(수)부터 23일(일)까지 온수공간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이후 영상을 K-Contemporary Sculpture of EWHA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였다.

## 섬유예술과

회장 \_\_ 전영선(88)

### 예미 임원진 회의

섬유예술과 동창회 예미 임원진은 2022년 1월 22일(토) 오전 11시 30분에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현재희(95) 홍보부장 사무실에서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전영선·이상영(94)·현재희·이혜나(96)·최유리(96)·장해림(02)·안은선(07) 동창이다. 임원진들은 2021년 활동 보고와 회계 보고를 하였으며 주소록 정비, 인스타그램 및 네이버 카페 개설 등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임원별 역할을 분담하였다. 또한 2022년 연간 예미 활동 일정에 따라 섬유예술과 동창회 총회, 비전 이화 인전 지원, 바자회, 예미전 등에 관해 순차적으로 의논하였다. 이를 통하여 섬유예술과의 발전을 위한 예미회의 역할을 상기하였다.



섬유예술과 동창회 예미 임원단

## 도예과

회장 \_\_ 서혜수(88)

### 줌으로 열린 도림회 정기총회

2022년 2월 26일(토) 도림회 정기총회를 줌(Zoom) 화상으로 진행하였다. 도예과 동창 회원 22명이 참석하였다.



도예과 정기총회에 참석한 도예과 동창들

## 유아교육과

회장 \_\_ 김용희(89)

### 신·구 임원 상견례 및 인수인계

유아교육과 동창회에서는 2022년을 맞이하여 새해 인사와 학교 소식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2022년 1월 11일(화)부터 16일(일)까지 유아교육과 동창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든 동창들에게 전하였다.

1월 22일(토) 오전 11시 서울 후암동 비스트로미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 맞춰서 유청옥(88) 전 회장, 방은정(91) 전 총무, 김용희 신임 회장, 황혜현(90) 신임 부회장이 신·구 임원 인수인계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 전임 임원들이 5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유아교육과 동창회에 봉사한 수고에 감사하고, 동창회 관



신·구 임원 인수인계 모임을 가진 유아교육과 동창회

련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였다.

제16대 동창회 신임 임원으로는 회장에 김용희 동창, 부회장 황혜현 동창, 총무 이현주(97) 동창, 회계 이순영(89) 동창, 감사 박희경(89)·최명희(89) 동창, 선교부장 최혜영(89) 동창, 서기 유한나(07) 동창이 임명되었다. 앞으로 신임 임원들이 열심히 봉사하여 이화 유아교육과 발전에 기여하는 동창 선후배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가나다순으로 계재

## 지회 소식

### 뉴욕 지회

회장\_\_김현우(서양 82)

#### 김현우 회장 집에서 가을 정기모임

2021년 10월 2일(토), 김현우 회장 집에서 40여 명의 뉴욕 지회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 참석한 동창들은 새롭게 동창회를 찾은 신입 동창을 환영하였고, 모든 참석자들이



김현우 회장 집에서 정기모임을 가진 뉴욕 지회 동창들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을 감추지 못한 동창들은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고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2022년 2월 2일(수) 8시부터 2시간 동안 줌(Zoom)을 통해 신년 하례식을 하였다. 이번 신년 하례식에는 21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동창회 소식을 공유하였다. 새해를 맞이하며 권혜경(정외 94) 심리치료 및 정신분석 학 박사의 ‘새해를 맞는 마음가짐에 관한 명상’ 특강이 진행되었다. 여전한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하고 화상 미팅으로 치러진 신년 하례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얼굴을 대하고 만난 듯 질서 정연하면서도 화기애애한 가운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답을 나눈 뜻깊은 자리였다.

## 멜버른 지회

회장\_\_윤숙경(간호 76)

### 연말 모임을 갖고 그간의 균황 공유

2021년 12월 12일(일) 보원 노스에 있는 신은미 전 회장의 집에서 연말 모임을 가졌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어 집에서 단체 모임을 할 수 있게 된 동창들은 기쁜 마음으로 손수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 풍성한 연말 식사를 함께하였다.

이날 모임엔 약 3년 전에 미국 뉴저지에서 멜버른으로 이주해 온 이경자(영문 59) 동창이 참석하여 과거 예술 및 문화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현재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을 격려해 주었다.

이어 지난 임원을 맡아온 신은미(사회 99) 전 회장, 박령(중문 03) 전 총무가 감사 인사를 했고, 새 임원진인 윤숙경 회장과 박해주(교공 99) 총무가 인사를 나누며 다음해에도 더욱 건설적인 만남을 갖기로 다짐을 하며 연말 모임을 마감하였다.



신은미 동창 집에서 연말 모임을 가진 멜버른 지회 동창들

## 베이징 지회

회장\_\_김정연(영문 98)

### 송년 모임 및 신임 회장단 선출



송년모임에 참석한 베이징 지회 동창들

베이징 지회는 2021년 12월 8일(수) 17명의 동창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모임을 진행했다. 광동식 레스토랑 순평(順峰)에서 진행된 송년 모임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지회 활동 내역을 공유하고 동창들의 균황을 나누었다.

또한 송년 선물 교환 및 '이화북경지회배 공기놀이'를 진행하는 등 동창들과의 친목을 다지면서 한 해를 즐겁게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1월 12일(수) 열린 새해 첫 정기 동창회에서는 2019년부터 회장을 맡아 '아시아지회 발족식'을 비롯 코로나19 시기의 동창회를 이끌어 주었던 강미경(생미 88) 전 회장의 이임 및 신임 회장 선출이 있었다.

신임 회장으로는 김정연 동창이 선출되어 2022년부터 베이징 지회를 새롭게 꾸려갈 예정이다. 김정연 신임 회장은 여러 동창들이 모인 가운데 따뜻한 동창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998년 7월 발족한 베이징 지회는 현재 37명의 이화 동창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국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꾸준한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해 오고 있다.

## 세인트루이스 지회

회장 \_\_ 최혜영(생미 86)

### 정기모임에서 임원진 연임 결정

2021년 12월 2일(목)에 킹도 식당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부부 동반으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박종관(선재숙(의학 72) 동창의 부군) 박사의 참조 발언에 설득되어 모든 임원진들이 연임을하게 되었으며, 모교 대외협력처와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 후 보내준 선물들을 나누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 맷글상인 '만사형 통상'으로 스타벅스 선물권을 받은 최혜영 회장이 동창회 기금으로 기증을 하여, 이화 사위들에게 경매를 붙였다. 이화를 사랑하는 마음에 김덕진(정선주(성악 68) 동창의 부군) 박사가 단번에 열 배의 가격을 불러, 모두에게 웃음 보파리를 선사하는 즐거운 모임이 되었다. 진선미 플러스 기금을 정한 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식사비를 지불할 기회를 못 가질 정도로 열성적인 동창들의 참여로, 모일 때마다 모교를 위한 국제재단 장학 기금이 늘어나게 되어 기쁨이 배가 된다.

2022년 2월 23일(수)에는 모교 사회생활과 교수로 정년 퇴임하고, 현재 미주리대학교 컬럼비아 캠퍼스에서 시무하는 김왕식 교수를 초대하여 화기애애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부부 동반으로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 세인트루이스 지회 동창들

2월 25일(금)에는 피닉스로 이주한 유임순(성악 55입) 동창이 세인트루이스를 방문하여서, 변함없는 동창들의 정을 나누는 오붓한 시간도 가졌다.

## 워싱턴DC 지회

회장 \_\_ 최미나(관현 90)

### 총회 및 연말 파티 개최하고 새 회장 인준

2021년 12월 18일(토) Westwood Country Club에서 총회와 연말 파티를 개최하였다.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파티에는 5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였다. 총회에서는 동창회 및 이 사회의 회계 보고와 2021년 지회 활동 보고를 하였으며, 2022년 새 회장으로 선출된 최미나 동창을 소개 및 인준하였다. 이어서 새 동창 소개와 래플 추첨, 패션쇼 등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하여 사랑과 감동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2022년 첫 동창회 행사로 2월 12일(토) 박일호(현 모교 조형예술대 교수) 교수를 모시고 '인상주의 이후 현대미술' 온라인 교양 특강을 진행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에는 30여 명의 동창이 참여, 대학으로 돌아가 모두 한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것처럼 열기로 가득 찼다.



연말파티에 참석한 워싱턴DC 지회 동창들

## 자카르타 지회

회장\_\_이익범(국문 85)

### 송년 모임으로 한 해를 훈훈하게 마감

2021년 12월 15일(수) 페어몬트 호텔 내 House of Yuen 레스토랑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가졌다. 팬데믹으로 인해 오랜만에 가진 모임에 신입 회원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동창들이 참석했다. 동창들은 선후배 및 동기 간 담소를 나누고 2021년을 훈훈하게 마감했다.

2022년부터 새롭게 동창회를 이끌어갈 15대 회장단으로 회장 이익범 동창, 총무 김아람(대학원 07)·김민지(관현 09) 동창이 선정되었다. 2년 동안 수고해 줄 회장단에게 동창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 드린다.

성혜미(커미부 03)·김민정(의직 93)·홍윤경(불문 16) 동창이 신입 동창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송년회에 참석한 자카르타 지회 동창들



개별 만남 및 우편으로 달력과 수첩을 전달한 파리 지회

화된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뜻깊은 해를 기념하는 정기 총회를 2021년 12월에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1주일 전에 행사를 취소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에 2022년 1월 17일(월) 지회 임원진들은 약식 회의를 열고 동창들에게 새해 달력과 수첩을 전달하는 방법 등 앞으로의 동창회 운영 방식을 논의하였다.

회의에는 윤애영 회장을 비롯해 박지은(부회장, 기관 96)·안정아(총무, 건축 06)·김윤정(회계, 국제학부 07) 동창이 참석하였다. 이후 동창들에게 개별 만남 및 우편으로 달력과 수첩을 전달하였으며 '영원한 이화인' 추천을 위한 동창 선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현 임원진은 2021년 12월에 취소된 총회를 갈음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3월 18일(금)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만남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창들이 스크린 너머에서라도 그간의 안부를 묻고 동창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6월 예정된 봄 야유회에서 반갑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 파리 지회

회장\_\_윤애영(서양 88)

### 임원진 약식 회의 열어 동창회 운영 방식 논의

2021년 창립 30주년을 맞은 파리 지회는 다소 완

**홍경자(약학 64) 동창**

홍경자 동창이 여덟 번째 시집『내 삶에는 울림이 있는가』의 문학성을 높이 평가받아 '국제 PEN 한국본부'로부터 '제37회 PEN 문학상 시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021년 12월 16일(목) 서울 인사동 수운회관에서 열렸다. 홍경자는 병원 약사 출신으로 2009년 월간《순수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이다.



홍경자 동창

**곽연(서양 67) 동창**

환경 예술 1세대 작가인 곽연 동창은 1980년대 초반부터 산업·생활 폐기물로 인해 숨쉬기 힘든 지구촌의 자연과 환경에 관심을 갖고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업을 해왔다. 2022년 1월 17일(월)부터 31일(월)까지 뉴욕 첼시가에 위치한 K&P 갤러리에서 열린 'K-Art New Wind Special Tour Exhibition', 2월 10일(목)부터 23일(수)까지 LA 소재 웨스턴 갤러리에서 열린 'From New York to Los Angeles' 등의 전시회에 '빛나리 대한민국'의 주제로 참여했다.



곽연 동창

**김화숙(의학 71)·안혜선(의학 84) 동창**

김화숙 동창이 고문, 안혜선 동창이 중앙위원장으로 있는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제37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사공협은 지난 2006년 대한의사협회, 대

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결

성됐으며, 분기별로 1년에 4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안혜선·김화숙 동창(왼쪽부터)

**윤석완(의학 76) 동창**

윤석완 동창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여자의사회가 2021년 12월 9일(목) '제1회 김우중 의료인상'에서 수십 년간 지속해 온 의료봉사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의료봉사상을 수상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1956년 창립되어 빈민촌 무료진료 봉사, 베트남 혼혈아 돋기 사업, 에이즈 예방 사업, 결식 아동 돋기, 조손가정 후원, 해외 의료봉사, 미혼모 가족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윤석완 동창

**장영란(섬예 77) 동창**

2022년 1월 2일(일)부터 2월 27일(일)까지 인천터미널점 5층 롯데갤러리에서 열린 '자수 오디세이(Embroidery Odyssey)' 전에 초대되었다. 장영란 동창이 30여 년간 모은 1,000여 점의 작품 중 일부인 작호도, 경직도, 일월오봉도 등 장영란 컬렉션이 1관에서 소개되었고, 번짐 효과의



장영란 동창

페인팅 위에 실과 바늘로 표현된 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현대 섬유 예술가로서의 장영란 동창의 자수 작품이 17인의 작가들과 함께 소개되었다.

### 박경숙(무용 80) 동창

2022년 1월 5일(수) 박경숙 동창이 광주시립발레단 신임 예술감독에 선임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박경숙 동창은 국립발레단 수석단원·광주시립발레단 제2대 단장, 한국무용협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경숙 동창

### 함영림(피아노 80)·계명선(피아노 85) 동창

모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함영림 동창과 계명선 동창의 피아노 듀오 콘서트가 2022년 3월 17일 (목)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열렸다. 함영림 동창은 모교 음악대학 학장 및 공연예술대학 원장, 한국피아노듀오협회 회장과 한국피아노학회 공동회장을 역임하였다. 계명선 동창은 현재 공연예술대학원 부원장과 한국피아노듀오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함영림 동창

계명선 동창

### 박승희(초교 81) 동창

모교 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승희 동창이 한국인 최초로 지적·발달장애 분야 최고 권위의 '미국 지적장애·발달장애 학회(AAIDD)'의 '2022 국제 어워드(International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AAIDD 학회는 1876년에 창립된 이래 전 세계 55개국, 5,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박승희 동창

지적장애 관련 가장 역사가 깊고 큰 규모의 권위 있는 다학문적 학회이다. 박승희 동창은 이화여대 발달장애아동센터 소장, 한국특수교육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 현재란(의학 81) 동창

2021년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추계학술대회(LMCE)에서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이하 한검협) 공로상을 수상했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인 현재란 동창은 이화검사센터 원장이자 한검협 부회장으로, 많은 개원의에게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단검사의학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현재란 동창

### 정경혜(제약 84)·황미경(약학 86) 동창

정경혜·황미경 동창이 다른 저자와 함께 「비교하면 보이는 약 vs. 약」(약사공론)을 발간했다. 이 책은 그동안 <약사공론>에 연재했던 '약 vs. 약(藥) 꼼꼼 비교'를 최근 허가사항과 정보에 맞춰 수정해서 발간한 책이다. 같은 질병 치료에 쓰이는 2개 약물 또는 동일 계열의 2개 약물을 비교해 각 약의 특징과 다른 점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정경혜 동창은 중앙대 약대 교수, 한국약사교육연구회 회장이며 황미경 동창은 한국약사교육연구회 부회장이다.



정경혜 동창

황미경 동창

### 강명원(생미 85) 동창

강명원 동창이 파나소닉 북미 지역 CEO로 취임하였다. 입사 후 일본 파나소닉 본사 글로벌 인사관

리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미국 파나소닉 인사 책임자를 역임했다. 파나소닉 북미 본부는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나소닉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자사의 신제품들을 공개했다. 강명원 동창은 “파나소닉의 목표는 최선을 다해 기후 변화를 막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다”라고 밝혔다.



강명원 동창

### 이경희(서양 85) 동창

이경희 동창이 운영하는 Gallery L.P.는 모교 서양화과 동창 중견 작가 6인을 선정하여 ‘2022 LA ART SHOW’에 참가하였다. 참여작가는 김홍식(서양 85)·송은주(서양 86)·김선주(서양 89)·박가나(서양 89)·김길숙(서양 90)·허정원(서양 93) 동창이다. Gallery L.P.는 앞으로도 국내 작가들의 해외 진출과 동창 화가들의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이경희 동창

### 정정엽(서양 85) 동창

정정엽 동창의 21번째 개인전인 ‘정정엽 전－물구나무 팔’이 2022년 2월 16일(수)부터 4월 24일(일)까지 대구 봉산문화회관 2층 4전시실에서 열린다. 이 땅의 빛깔을 머금은 팔, 녹두, 겹은 콩 등의 곡식들이 익숙한 색채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충만하게 한다. 안성에 작업실을 두고 서울, 인천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동창이 대구에서 갖는 첫 초대 개인전이다. ‘여성의 노동’을 주제로 꾸준히 작업하며 여성주의 미술 대표 작가로 꼽히는 정정엽 동창은 이응노미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정엽 동창

### 조기숙(무용 85) 동창

조기숙 동창이 단장으로 있는 조기숙 뉴발레단이 2021년 12월 21일(화) 서강대학교 메리홀에서 <순이와 철수>, <지젤의 방>을 공연하였다. 조기숙 동창이 안무를 맡은 <순이와 철수>는 발레의 권위를 완전히 내려놓고 놀이를 하는 컨템포러리 작품이다. 2005년 창단한 조기숙 뉴발레단은 한국적인 철학과 미학을 기반으로 21세기 한국에 맞는 컨템포러리 발레를 창작·공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단 이래 약 25편의 작품을 창작·발표했으며, 매년 젊은 발레 안무가들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기획하여 선보이고 있다.



조기숙 동창

### 박영주(서양 86) 동창

2022년 1월 14일(금)부터 2월 9일(수)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UD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을 가졌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Memory\_사라지는 풍경들’로, 지나간 시간을 기록하는 작업이다. 박영주 동창은 1970~1980년 아날로그 시대의 기억의 한 장면들을 풍경으로 그려내며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다.



박영주 동창

### 변해정(서양 86) 동창

2022년 2월 25일(금)부터 3월 4일(금)까지 서울 아산병원 동관에 위치한 아산병원 갤러리에서 ‘봄을 기다리는 이유’ 초대전을 열었다. 평소 ‘그림에 수를 놓다’라는 제목으로 작업을 하는 변해정 동창은 수를 놓은 듯 보이는 독특한 본인만의 기법으로 풍경과 정물, 추상 등 다양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변해정 동창

### 송영은(서양 86) 동창

고양이를 소재로 인간의 내면세계와 감춰진 감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작가 송영은 동창의 'BLOOMING SOMETHING\_피어 오르는 것들' 전시가 2022년 2월 22일(화)부터 3월 10일(목)까지 서울 안국역에 위치한 갤러리FM에서 열렸다. 봄 축제의 분위기를 좀 더 몽환적으로 하기 위해서 번짐과 중첩으로 표현된 풍경 이미지를 조각내고 재결합시키는 시도를 하였으며, 시각적 유화를 극 대화시켜 관람객들에게 기쁨이나 행복 같은 정서적 안정을 전하고자 하였다.



송영은 동창

### 윤경(서양 86) 동창

2022년 1월 28일(금)부터 3월 31일(목)까지 서울시 서대문구 원천교회 원천아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전시 주제는 '싯딤나무처럼\_광야에서'이며 하늘을 향해 곧은 믿음을 표현한 나막의 이미지로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 가운데 생수 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담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윤경 동창

### 홍현애(조소 86) 동창

2022년 2월 19일(토)부터 5월 15일(일)까지 홍현애 동창의 초대 개인전 '거룩한 대화'가 LA 애나하임의 Muzeo Museum에서 열린다.



홍현애 동창



강승주 동창

### 강승주(조소 87) 동창

2021년 12월 2일(목)부터 31일(금) 까지 강승주 동창의 초대전이 '레지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금보성

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 손은영(서양 87)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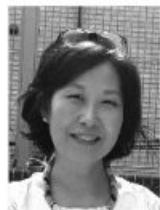
2021년 12월 4일(토)부터 26일(일)까지 아트갤러리전주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밤의 집'이란 주제전으로 손은영 동창은 서울과 군산 등 도시 주변에 자리한 작고 납작한 집들을 촬영했다. 아파트로 인해 사라지는 우리 집들의 초상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였다.



손은영 동창

### 윤경미(서양 87) 동창

2022년 1월 19일(수)부터 31일(월)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윤경미 동창이 기획 초대전을 가졌다. 'Beneath, Between and Beyond'가 주제인 이 전시는 윤경미 동창의 아홉 번째 개인전이다. 윤경미 동창의 작품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에서 작품을 구입하여 한국과 중국의 루이비통 매장에 전시되어 있다.



윤경미 동창

### 조보영(철학 87) 동창

2022년 1월 1일(토) 2022년 LF 정기 임원 인사에서 조보영 동창이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받았다. 조보영 동창은 우리나라 1세대 핸드백 디자이너로 시작한 액세서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 출신 경영인이다. 2014년 LF에 입사해 액세서리 사업부장, 부문장 등을 거쳐 현재 액세서리 상품본부장(전무)을 맡고 있으며, 헤지스액세서리 및 닉스액세서리, 질스튜어트뉴욕액세서리 등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매출 신장을 이끌었다. 조보영 동창은 뛰어난 디자인 및 브랜딩 감각을 바탕으로



조보영 동창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시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김정재(정외 88) 동창

2022년 3월 18일(금)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인 김정재(정외 88) 동창이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에 임명했다. 김 특별 보좌역은 모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포항북 재선(20대, 21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해 왔다.



김정재 동창

### 이상미(섬예 88) 동창

이상미 동창은 고양 스타필드 작은 미술관에서 기획한 '섬유예술 전'에 초대되어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월 14일(월)까지 전시에 참여하였다. 강렬한 색채의 물감으로 채색된 캔버스 위에 다양한 질감의 섬유 소재를 콜라주하고 자수를 놓아 섬유 페인팅이라는 독특한 표현 양식을 보여 주었다.



이상미 동창

### 이해영(국문 88) 동창

2021년 9월 28일(화) 모교 한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해영 동창이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9월 27일까지다. 이해영 동창은 문체부 국어심의회 위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이중언어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한국어교육 전문가로서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한국어 교원 양성 등 다양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연구 성과



이해영 동창

를 쌓아 왔다.

### 정인숙(서양 89) 동창

2021년 10월 13일(수)부터 17일(일)까지 영국 런던 사치갤러리에서 열린 '스타트아트페어'에 개인전 형식(부스번호 7, 4)으로 출품하였다. 이어 2022년 2월 23일(수)부터 3월 8일(화)까지 서울시



정인숙 동창

강남구 소개 유나이티드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작가의 방·우리들의 방·보는 방'으로, 색션을 나누어 '자화상-자화자찬'이란 전시명으로 개인전을 진행하였다.

### 최내경(불문 89) 동창

최내경 동창이 소장으로 있는 한 불문화예술연구소는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의『어린왕자』 출간 75주년을 맞이하여 '어린왕자와 함께하는 3인 화가 한불교류전'을 열었다. 전시는 2022년 2월 5일(토)부터 25일(금)까지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에서 열렸다.



최내경 동창

### 최은경(약학 89) 동창

약대동창회 지역부부장인 최은경 동창이 2022년 1월 22일(토) 인천시 약사회관에서 진행된 제56회 정기총회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제28대 부평구약사회장으로 3선에 당선되었다.



최은경 동창

### 김영진(약학 90) 동창

약대 동창회 사업부장인 김영진 동창이 2022년 1월 17일(월), 서울시약사회 강서구 회장 선거에



김영진 동창

서 분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또한 김영진 동창은 1월 27일(목) 오후 4시 리버사이드호텔 노벨라홀에서 열린 서울시 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서울시약사 대상을 받았다.

### 이신화(서양 90) 동창

이신화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 ‘나의 고백’이 대구 매일신문사 1층 DCU갤러리에서 2022년 1월 12일(수)부터 28일(금)까지 열렸다. 푸른한 잎과 색색의 꽃, 주홍빛의 벽돌이 어우러진 그림에서는 희망과 기쁨이 비치는 작품들로, 2019년 대구에 정착하게 된 이신화 동창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자주 찾은 장소들을 그린 것이다. 첫 개인전 이후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며 서울대병원 미술치료사, 아동청소년발달센터 미술심리상담사 등의 경력을 쌓은 이신화 동창이 16년 만에 가진 개인전이다.



이신화 동창

### 임석아(의학 91) 동창

2021년 12월 1일(수) 임석아 동창이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을 수상하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인 임석아 동창은 종양내과학을 전공한 의학자로서 표적항암제 작용기전 및 바이오마커 연구에 기반을 두고, 신약 임상시험을 통하여 유방암 환자에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여 왔다.



임석아 동창

### 김윤경(경제 92) 동창

모교 경제학 전공/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김윤경 동창이 2022년 2월 11일(금) 한국자원경



김윤경 동창

제학회 25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임기는 1년이다. 김윤경 동창은 한국자원경제학회 및 한국여성경제학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전력거래소 비상임 이사,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 도월희(의직 92) 동창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도월희 동창이 2022년 1월 1일(토) 한국의류산업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도월희 동창은 1년 동안 전국 섬유 및 패션 의류학 분야의 전문가 2,000여명으로 구성된 학회를 이끌게 된다. 한국의류산업학회는 학문 연구와 기술 발전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이다. 도월희 동창은 현재 한국대학기관생명윤리위원회협회(KSIRB) 부회장 및 전남대 IRB위원장, 헬스케어웨어 R&BD 센터장, 국제규격 ISO의 TC133/WG2와 TC137/WG4 전문위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사이즈코리아센터 자문위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월희 동창

### 최문선(서양 92) 동창

최문선 동창이 일곱번째 개인전 ‘Back to 2019 NEW YORK’을 2021년 12월 6일(월)부터 26일(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Gallery1707에서 가졌다. 회화 작가인 최문선 동창은 이번 전시에서 회화적 사진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직접 찍은 사진에 판화적 느낌을 차용하여 회화적인 새로운 화면으로 팬데믹 이전, 2019년도의 뉴욕의 모습을 재구성한 것이다. 일상인 줄 알았던 뉴욕의 풍경이 과거의 이상향처럼 되어 버린 지금을 생각하게 하는 전시였다.



최문선 동창

### 김정희(법학 93) 동창

김정희 동창이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전반을 기획·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고위공무원 가급)에 임명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조직으로 신설된 1948년 이후 최초의 1급(고위공무원 가급) 여성 공무원이다.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오른 김정희 동창은 농식품부 주요 부서의 정책기획관, 유통소비정책관, 농업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들을 두루 역임해 오며 첫 여성 사무관, 첫 여성 과장, 첫 여성 국장 등 ‘최초 여성 공무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온 바 있다.



김정희 동창

### 김혜주(통계 93) 동창

2021년 12월 29일(수) 김혜주 동창이 신한은행 디지털전략그룹 마이데이터 유닛장(상무)로 전보되었다. 김혜주 동창은 2013년부터 삼성전자 총괄사업부 부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부터는 약 5년 간 KT AI·빅데이터융합사업담당 상무로 일했다.



김혜주 동창

### 송원자(독문 93) 동창

송원자 동창이 자동화분야 국내 1위 기업인 LS ELECTRIC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 송원자 동창은 1998년 CPA에 합격하여 2018년까지 안진회계법인에서 근무한 후, 현재 수원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송원자 동창

### 문유선(서양 94)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2022년 1월 20일(목)까지 서울 GS타워 더 스트릿 갤러리에서 초대전 ‘인연(因縁)– 기억의 조각들(Pieces of memory)’을 가졌다.



문유선 동창

다. 또한 2월 23일(수)부터 3월 6일(일)까지 서울시 인사동 토포하우스 갤러리에서 ‘기억의 표면, 시간의 깊이’ 개인전을 가졌다. 문유선 동창은 캔버스에 물감을 흘려 넣어 시간을 쌓는 작업을 선보이는 작가로, 추상과 수공의 경계를 보여 주는 새로운 화면으로 이목을 끈다.

### 이상영(섬예 94) 동창

이상영 동창은 2021KCDF 공예디자인 공모전시 개인작가부문에 선정되어 2021년 12월 15일(수)부터 20일(월)까지 KCDF갤러리 1전시장에서 ‘미완의 유토피아\_ 빛 다른 표정’을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작가는 LED 조명에 의한 빛과 다양한 자수 기법으로 표현한 실로 그린 듯한 한옥 풍경, 기계 자수로 한옥 지붕을 하나의 피스로 만들고 여러 개를 군집한 설치 작업 등으로 다년간에 걸쳐 변화된 작품 활동을 한자리에 선보였다.



이상영 동창

### 맹민경(경영 05) 동창

2022년 2월 3일(목) 전 미래에셋 증권 선임 매니저 맹민경 동창이 유로넥스트 상장사이자 전세계적 선도적 인프라 투자 기업인 앤틴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의 IR 분야 이사로 선임되었다. 맹민경 동창은 앤틴의 대규모 한국 펀드 투자를 집중 관리하게 된다. 앤틴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는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독립 사모펀드이다.



맹민경 동창

### 안은선(섬예 07) 동창

2021년 12월 7일(화)부터 19일(일)까지 서울시 성

동구에 위치한 엘 패티오(El Patio)에서 ‘그린 파이버(greem fiber)’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안은선 동창은 녹색 펠트 소재를 일정한 두께의 선으로 재봉하고 선들을 여러 방향으로 그물과 같이 엮어 설치함으로써 전시 공간을 자연의 녹색 생명력으로 채웠다.



안은선 동창

### 장영엽(영문 08) 동창

장영엽 동창이 영화 전문 매체 『씨네21』의 새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008년 『씨네21』 취재기자로 입사한 장영엽 동창은 2015년 취재팀장을 거쳐 2019년부터 편집장을 맡아왔다. 저서로 『영화인이 말하는 영화인』(2017), 『영화는 무엇이 될 것인가』(2021)가 있다.



장영엽 동창

### 정소윤(섬예 14) 동창

정소윤 동창이 스페인의 명품 브랜드인 로에베 재단(Loewe Foundation)에서 주최하는 제5회 ‘크래프트 프라이즈(Craft Prize)’ 공모전의 최종 30인에 선정되었다. 문화에서 공예의 중요성, 탁월성과 예술성, 독창성을 알리고자 설립된 로에베 재단의 국제 공예 공모전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대회이다. 선정된 작품들은 ‘2022 로에베 재단 공예상’으로 2022년 7월 1일(금)부터 31일(일)까지 서울공예박물관 전시1동 1층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정소윤 동창

### 권혜현(도예 15) 동창

권혜현 동창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2022년 KCDF 공예·디자인 공모전시 신

진 작가’에 선정되어 개인전 ‘잠시 머물다 이동하기 Hop On, Hop Off’를 개최하였다. 전시는 2022년 2월 23일(수)부터 3월 20일(일)까지 서울 인사동 소재 KCDF갤러리에서 열렸다.



권혜현 동창

### 김순옥(정책대학원 19) 동창

김순옥 동창이 세계한민족여성재단(KOWINNER) 제4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은 여성가족부가 해마다 개최하는 ‘세계 한 민족 여성 네트워크(KOWIN)’ 참가자들이 2007년에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단체로 전세계 34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김순옥 동창은 학교법인 남성학원 이사, IS오토 대표이사로,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회장, 법무부 법사랑 여성특별위원장, 민주평통 운영위원회 여성분과 위원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펼쳐왔다.



김순옥 동창

### 심현진(약학 19) 동창

심현진 동창은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스타트업의 R&D 융복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건립한 연구개발(R&D) 중심의 창업보육공간인 ‘엠플러스(M+)센터’에 ‘진심건강센터’를 열었다. 또한 심현진 동창은 2021 예비스타트업 발굴육성프로그램에서 산업화지원 최종 선정기업 예비창업자로 뽑혔다. 아이템은 ‘개년기 건강상담 어플 및 웹사이트 개발’로 계명대학교 창업지원금 400만 원을 받는다.



심현진 동창

# 동 창 이 펴 새 책



## 아름다운 늦바람

류혜향(유혜향 · 사회 66)  
류혜향 지음 / 오늘의문학사

류혜향 동창이 2021

년 대전시 문화재단

공모전에 당선되어

시집『아름다운 늦바

람』을 출간하였다.

일흔 넘은 나이에 시에 푹 빠지게 된 것을 늦바람으로 표현하였다. 류혜향 동창은 2016년 문학사랑 신인작품상으로 등단하였다. 문학사랑, 한국문인협회 대전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문학사랑협의회 운영이사와 문예창작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 한국 가족: 신가족주의에서 포스트가부장제로

이재경(사회 74)  
이재경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1990년대부터 2020년

대 현재까지 한국 가

족의 변화를 여성, 젠

더, 그리고 불평등이

라는 키워드를 중심

으로 논의하는 책이다. 이 책은 독자



들에게 21세기 한국 가족의 문제와

대안, 미래 가족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재경 동창은 모교 여성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여성학회 회장, 한국가족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 다만 보라를 듣다

강기원(강순미 · 정외 79)

강기원 지음 / 민음사

강기원 동창이 다섯 번째 시집『다만 보라를 듣다』를 출간하였다.

강기원 동창은 이번 시집을 통해 육체의

경계를 넘어 존재를 탈바꿈하는 '변신'뿐만 아니라 '색'이 '소리'가 되고 '소리'가 '색'이 되는 감각의 전이, 공감각의 영역으로까지 그의 세계를 확장해 나간다. 강기원 동창은 1997년 『작가세계』 신인문학상 당선으로 등단했다. 제25회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시집으로『고양이 힘줄로 만든 하프』,『바다로 가득찬 책』,『은하가 은하를 관통하는 밤』 등이 있다.



## 다이얼로그 물리학

이공주복(물리 81)

이공주복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다이얼로그 물리

학』은 30여 년간 대

학 강단에 서며 물

리학을 강의해 온

이공주복(모교 물리

학과 교수) 동창이 일반물리학의 교육과정에 따라 고전역학(1권), 물성·

파동·열역학(2권), 전자기학(3권), 상

대성이론·양자역학(4권)의 전 4권으로

편성하여 집필한 시리즈다. 저자의

분신인 '바리 교수'와 두 학생 '울리', '엘리'가 서로 묻고 답하며 대화

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풍부한 사



례와 관련 삼화들로 구성되어 필수적인 개념을 어렵지 않게, 하지만 탄탄하게 짚어낸다.

## 불교의 무아론

한자경(철학 81)

한자경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한자경 동창이 청송학

술상을 수상한 바 있는

『불교의 무아론』의 개

정판을 출간하였다. 불

교의 무아론은 자아를

포함하는 세계와 우주 전체의 존재를 논하는 존재론이자 형이상학이다. 한자경 동창은 모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저서로『칸트와 초월철학』,『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심층 마음의 연구』 등이 있다.



## 플롯의 발견

김경미(국문 83)

김경미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플롯은 서사의 기획

과 의도를 구현하는

장치로, 서사의 핵심

적인 요소이다. 이 책

은 플롯 분석을 통해

한국 고전 서사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경미 동창은 현재 모교 이화인문과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여/성이론』, 편집주간, 여성문화이론 연구소 대표를 역임했다.



## 우아한 루저의 나라

고혜련(사학 85)

고혜련 지음 / 정은문고

이 책은 1898년 당현

(당고개) 금광을 조사

하고 돌아간 크노헨

하우어의 1901년 강연

문, 1913년 조선을 경



험한 예센의 여행기, 1933년 라우텐자흐 교수가 백두산 밀림에서 만난 이름 모를 독립군 이야기 등 대한제국을 답사한 3인의 독일인의 기록을 통해 대한제국 역사자료를 입체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였다. 고혜련 동창은 현재 국제교류재단이 파견한 한국학 교수로서 2019년 신학기부터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에서 매 학기 한국예술사,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다.

### 기억의 기록으로 쓰는 구술사

정연경(문정 85)  
정연경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이 책은 구술사의 의미와 특성, 구술 자료의 수집 방법과 연구 동향 등을 살펴보고 국내외 구술 자료 수집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구술 작업 적용 사례와 구술사 관련 쟁점들을 소개하고 있는 연구서이다. 정연경 동창은 현재 모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및 기록관리교육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문현정보학교 수협의회 회장,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교육센터 자문위원,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 활동하고 있다.



### 연이와 버들 도령

백희나(교공 95)  
백희나 글·그림 / 책읽는곰



백희나 동창이 엣이야기 그림 책 「연이와 버들 도령」을 펴 냈다. 「연이와 버들 도령」은 설화를 바탕으로 닉종이 인형, 인형과 실사의 혼합 등 공들인 장면 연출과 새로운 운 해석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백희

나 동창은 어린이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2020년에 수상하였으며, 저서로 「구름빵», 「장수탕 선녀님», 「알사탕」 등이 있다.

### 장애 형제자매와 동행하기

김유리(특교 96)·장세진(특교 13)·진은총(특교 15)·임수지(특교 18)  
Katie Arnold 외 8인 지음 / 김유리·장세진·진은총·임수지 옮김 / 피치마켓  
모교 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유리 동창과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장세진·진은총·임수지 동창이 장애 형제자매를 둔 비장애인을 위한 책 「장애 형제자매와 동행하기」(원저: 「The Sibling Survival Guide」)를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특수교육 전문가이자 장애인 동생을 둔 언니들이기도 한 네 사람은 이 책을 통해 세상의 수많은 장애인 형제자매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한다.



### 최고의 블렌디드 러닝

권정민(특교 99)  
권정민 지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권정민 동창이 「최고의 블렌디드 러닝」을 출판하였다.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은 흔히 「온라인(원격) 수업과 오프라인(다면) 수업을 결합한 수업 형태」라고 정의된다. 블렌디드 러닝은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교육 혁신과 미래교육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권정민 동창은 이 책에서 디지털

기술과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생에게 더 깊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부여하는 질 높은 블렌디드 러닝의 원리와 방법을 제시한다.

### 프로일잘러

유꽃비(중문 08)  
유꽃비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일머리 좋은 사람, 성

과를 내는 사람, 커뮤

니케이션 능력이 뛰

어난 사람, 이름은 다

양해도 일잘라는 결



국 한 길로 통한다.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풀어 주는 일잘러 노하우를 담았다. 대기업 마케터, 브랜드 매니저, 영업 팀장까지 산전수전 다 겪은 유꽃비 동창은 15년의 직장 생활이 녹아든 생생한 에피소드들로 진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실제 곤란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과 팁들을 제시한다.

### 99점은 100점이 아니다

류나리(이유나·한음 09)  
류나리 지음 / 미다스북스

5개 학교 9년 경력의

입학사정관 류나리

동창이 책을 출간했다.

다. 책 속에는 입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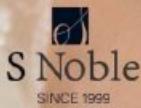
정관으로서의 고민과

노력, 그 과정에서의 경험은 물론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교육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입시에 대한 최선의 전략으로 미래 교육의 혜안을 담았다. 류나리 동창은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강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근무하였다.





VVIP 통합 프리미엄 매칭 서비스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 에스노블



두 대통령 家의 성혼을 이루어 낸  
23년 경험의 프리미엄 매칭 노하우  
엄정한 심사와 신원 인증을 거친 차별화된 회원 네트워크  
**Nobless** 결혼을 이끌어 온 최고의 성혼을

# ROYAL X CLUB

LOUNGE & BAKERY

CREATE

SOAP

경기도 화성시 청로 895-20 로일밸리파크나 로일엑스 | 화-일 : 11:00 - 22:00 | www.royalx.kr

ROYAL  
X  
ROYAL & CO